

중등

수능 독해

정답과 해설

1. 운문 문학

본문 016~017쪽

01

님의 침묵 - 한용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불교적, 상징적, 의지적, 역설적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특징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공감각적
06 단풍나무 숲 07 그러나 08 침묵

실력 문제

09 ⑤ 10 ⑤ 11 ④

01 이 작품에서 '님'은 '부처(종교적 절대자), 빼앗긴 조국, 사랑하는 연인' 등 화자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 사랑하는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02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다시 만날 희망으로 전환하면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재회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다.

03 이 작품은 9행의 '아아, 님은 갓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시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04 이 작품의 8행인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시다.'에는 헤어짐과 만남은 결국 하나라는 불교의 역설적 진리가 담겨 있다.

05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 청각의 후각화가 나타난 시구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06 이 작품의 1~2행에서 '사랑하는 나의 님'은 '푸른 산빛'을 깨뜨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로 갔다고 하며, 임과의 이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산빛'은 절망을 상징하는 '단풍나무 숲'과 대조된다.

07 이 작품의 화자는 1~6행까지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다가, 7행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하여 이별의 슬픔을 재회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전환하고 있다.

08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임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한다.

09 **화자·대상 + 표현**

이 작품은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붙여넣어 표현하는 감정 이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버니다'라는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이 작품은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의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은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는 뜻으로 불교 용어에서 온 말이다.

③ 이 작품은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산빛'과 절망을 상징하는 '단풍나무 숲',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의미하는 '황금의 꽃같이 빛나던 옛 맹서'와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차디찬 티끌' 등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이 작품에서는 7행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화자의 정서가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되고 있다.

알아두기 이 작품에 나타난 시상의 전환

1~4행(기)	임과의 이별	이별의 슬픔과 절망
5~6행(승)	이별 후에 느끼는 슬픔	
⇓ '그러나' - 시상의 전환		
7~8행(전)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	슬픔의 극복과 재회 에 대한 희망
9~10행(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10 **표현**

1행에서 '님은 갓습시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고(ㄴ), 9행에서 '님은 갓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시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재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이 작품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은 쓰이지 않았다.
ㄷ. 이 작품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은 쓰이지 않았다.

배경지식 역설적 표현의 개념과 효과

개념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
효과	- 강한 인상과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음 - 모순된 표현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음 -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숨겨진 진리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음

독자마다 처한 입장이나 상황이 다르며, 그에 따라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④의 관점에서 ㉠ '님'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음을 고려할 때 ㉠ '님'은 빼앗긴 조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작품은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시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이 작품의 작가 한용운이 승려였음을 고려할 때 ㉠ '님'은 부처나 종교적인 절대자, 불교적 진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작품은 종교적인 깨달음의 고통을 노래한 시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이 작품이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 '님'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이 작품에서 ㉠ '님'의 의미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님'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진다.

알아두기 '님'의 상징적 의미

부처 (종교적인 절대자)	이 작품의 작가 한용운이 승려였음을 고려할 때, '님'은 부처나 종교적인 절대자, 불교적 진리 등이라고 볼 수 있음
빼앗긴 조국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음을 고려할 때, '님'은 빼앗긴 조국이라고 볼 수 있음
사랑하는 연인	이 작품이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님'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볼 수 있음

배경지식 + 한용운의 작품 세계

한용운(1879~1944)은 승려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호는 만해이며 용운은 법명이다. 3·1 운동 때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데 앞장섰다.

『님의 침묵』은 1926년에 한용운이 간행한 시집으로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알 수 없어요」, 「비밀」 등과 같은 88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시집의 전체 내용은 이별하는 데서 시작되어 만남으로 끝나는 극적 구조를 지닌 한 편의 연작시로 볼 수 있다. 한용운의 문학이 지닌 특징은 바로 불교 사상과 독립사상이 탁월하게 예술적으로 결합된 데서 드러나며, 그의 작품들은 불교적인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이 두드러진다.

+ 독해 체크

본문 018쪽

- ① 이별 ② 재회 ③ 종교 ④ 조국 ⑤ 전환
⑥ 희망 ⑦ 모순 ⑧ 믿음

+ 어휘 체크

본문 019쪽

- ㉠ - ㉡ - ㉢ - ㉣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화적, 감각적, 주지적, 비유적

주제 도시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특징 • 감각적인 표현과 참신한 비유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함
•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시각
06 묘석 07 등불

실력 문제

- 08 ② 09 ② 10 ⑤ 11 ②

01 이 작품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며 그 슬픔을 홀로 토로하고 있으므로, 암울하고 쓸쓸한 독백의 어조가 나타난다.

02 이 작품의 화자는 '나'로 표면에 등장하여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3 4연의 마지막 행에 제시된 '길—게 늘인 그림자'는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온 화자의 모습이자 고독하고 쓸쓸한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04 5연의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기'에 나타나듯 화자는 방향감을 상실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의지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05 이 작품은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쓸쓸한 도시의 풍경과 도시인의 고독을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다.

06 이 작품에서는 도시의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고층 건물은 '묘석(墓石)'에, 야경은 '잡초'에 빗대고 있다.

07 1연의 '등불'은 떠남의 신호이지만, 화자는 이를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하며 외로이 방황하고 있다.

08 **표현**

이 작품에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소재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의인법과 점층법을 사용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어름해 황망히 나라를 접고'는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한 활유법이 사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1연과 5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도시 문명 속에서 고독과 절망감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는 '차단—한', '비인', '호울로' 등의 시적 허용이 나타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쓸쓸함과 공허함 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비인 하늘', '늘어난 고층', '창백한 묘석', '찬란한 야경'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제시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에서는 '슬픈', '눈물겹고나', '공허한', '무거운 비애'와 같이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수미상관 구성의 효과

- | | |
|----|--|
| 1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
| 5연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첫 연과 마지막 연이 행의 배열이 바뀐 역대칭의 구조로 배치됨



마지막까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냄

09 시어(구) + 표현

2연에서 도시의 고층 건물을 '창백한 묘석(墓石)'에,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화려한 물질문명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하고 황량한 풍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1연과 5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현대인의 고독과 방향 상실을 표현하고 있다.

③ 3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도시의 소란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10 표현

⑦은 시각을 촉각화하여 나타낸 공감각적 이미지로, 황량하고 고독한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⑤에서도 '새파란 초생달'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시리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한 공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① 후각적 심상이 쓰였다.

②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③ 청각적 심상이 쓰였다.

④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알아두기 감각적 표현에 담긴 도시의 모습과 화자의 정서

촉각적 이미지	차단—한 등불
시각적 이미지	비인 하늘, 늘어난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 길—게 늘인 그림자
청각적 이미지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공감각적 이미지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화려하면서도 황폐한 도시 문명과 그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과 비애, 소외감 등을 드러냄

배경지식 + 「와사등」의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기존의 도덕과 권위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도시 문명이 가져다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 기반을 둔 문예 사조를 말한다. 김광균의 「와사등」은 이러한 모더니즘 경향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기교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1 화자·대상 + 주제

이 작품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비애와 고독감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작품에 그려진 도시는 화자에게 상실감과 우울함을 느끼게 할 뿐, 대상을 두려워하며 우려러 보는 마음인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도시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비롯해 '슬픈', '눈물겹고나', '무거운 비애' 등과 같은 시어를 통해 도시 문명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비애와 고독감을 전달하고 있다.

③ 1연에서 화자는 적막한 배경인 '비인 하늘'에 걸려 있는 사물인 '등불 하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호올로'를 통해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3연과 4연에서 화자는 도시의 밤거리를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걸으며 무거운 비애를 느끼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도시의 단절된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연은 1연의 내용이 시행의 배열이 바뀐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마지막까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등불'의 의미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이는 '등불'의 의미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을 지니므로 문학 작품 속에서 흔히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쓰임 예) 한용운, 「알 수 없어요」에서 '등불'은 어두운 밤을 이겨 내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냄
「와사등」에서 '등불'의 의미	'차단—한 등불'은 차가움의 이미지를 통해 현대 도시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더불어 어디론가 떠나라는 '슬픈 신호'를 의미하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는 도시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함

+ 독해 체크

본문 022쪽

- ① 도시 ② 군중 ③ 고독 ④ 비판 ⑤ 방황
⑥ 현대인 ⑦ 수미상관 ⑧ 촉각

+ 어휘 체크

본문 023쪽

- 1 (1) 비애 (2) 묘석 (3) 황망히
2 <가로> ① 공허하다 ② 와사등
<세로> ① 공감각적 ③ 사념

03

그리움_이유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시각적, 애상적

주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특징**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함
 -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반복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나타냄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그리움
06 눈 07 차마

실력 문제

- 08 ③ 09 ④ 10 ⑤ 11 ②

01 이 작품에서 ‘함박눈’은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로, 포근하고 아늑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02 이 작품은 ‘기(1연)－승(2~3연)－전(4연)－결(5연)’의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3 이 작품은 의문형 종결 어미의 반복, 수미상관의 구조, 반복적 표현 등을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역설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이 작품의 4연에서 화자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고 ‘그리운’을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05 이 작품에는 내리는 ‘눈’을 보며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06 이 작품에서 ‘눈’은 그리움의 대상인 가족과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인 북쪽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므로 그리움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배경지식 + 매개체

매개체는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 주는 것’을 말한다. 문학 작품에서 특정 소재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하도록 설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에서 연인이 남긴 물건은 그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07 ‘차마’는 원래 부정적인 말과 호응하는 부사어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시적 허용을 통해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으로 쓰여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08 표현

이 작품은 ‘-는가’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문을 해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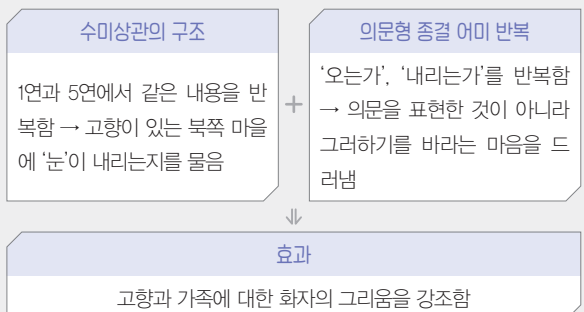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① ‘굽이굽이’, ‘느릿느릿’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차마’는 부정적인 말과 호응하는 부사어인데,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시적 허용이 나타난 표현으로 쓰여 화자의 그리움을 응축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내리는가’, ‘그리운 곳’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고향과 가족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⑤ 1연과 5연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얻고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알아두기 반복을 통한 효과



09 시어(구)

4연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추운 겨울밤에 잠을 깬 화자는 ‘어찌자고 잠을 깨어’라고 자책하는 듯한 의문을 던진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으로 보아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염려하는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과 5연에서 화자는 ‘눈’을 매개로 고향을 떠올리면서 ‘오는가’에서 ‘쏟아져 내리는가’로의 변주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을 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2연에서 ‘돌아간’은 철길의 휘어진 모양을 나타내고, ‘달리는’은 철길 위를 이동하는 화물차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시어가 대상 간의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2연에서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으나, 화물차는 철길 위를 밤새워 달리고 있으므로 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4연에서 ‘차마 그리운 곳’은 시적 허용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을 뿐,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화자·대상

〈보기〉의 ㉠를 통해 작가는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통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며 고향을 떠올리고 있을 뿐, ①에서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② ㉠은 고향으로 가는 화물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은 두메산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④ ㉢은 고향에 있는 가족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화자의 처지와 정서

화자의 처지

-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옴
- 함박눈이 오는 고향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족이 있는 고향에 '복된 눈'이 내리기를 바람
- 홀독하게 추운 겨울밤에 잠에서 깨 가족을 생각함



화자의 정서

-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가족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11 시어(구) + 주제

2연과 3연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과 '눈'은 색채 대비를 이루지만, '화물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고향에 있는 '북쪽'에 포근하고 아늑한 이미지의 '함박눈'이 내리는지 자문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에서 고향을 상징하는 '작은 마을'에 '복된 눈'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에는 고향에 있는 '너', 즉 가족을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4연에서 잉크병이 얼어 버릴 만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잠을 깬 화자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으로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5연에서 1연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배경지식 + 이용악의 삶이 반영된 작품

이 작품의 작가 이용악은 1945년 해방 직후 북쪽에 있는 무산(茂山)의 처가에 가족을 두고 혼자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하였다. 이처럼 「그리움」은 실제로 고향이 북쪽인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 독해 체크

본문 026쪽

- ① 밤 ② 고향 ③ 그리움 ④ 의문형 ⑤ 매개체
 ⑥ 축복 ⑦ 가족

+ 어휘 체크

본문 027쪽

- 1 (1) 굵이굵이 (2) 차마 (3) 심화
 2 (1) ㉠ (2) ㉡ (3) ㉢

04

추천사 - 춘향의 말 1_서정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이상적, 낭만적, 초월적

주제 초월적 이상 세계에 대한 갈망

특징 • 고전 소설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형상화함
 • 춘향이 향단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둠
 •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좌절
 06 바다 07 섬

심력 문제

- 08 ② 09 ⑤ 10 ① 11 ③

01 1연의 '향단아 그넷줄을 밀어라'라는 시구를 통해 이 작품의 화자는 그네를 밀어 달라고 향단에게 말을 건네는 춘향임을 알 수 있다.

02 이 작품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작품은 그네의 움직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이 작품은 고전 소설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여 기생의 딸이라는 신분적 제약에 매여 있는 춘향을 통해 초월적 세계로의 지향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라는 표현으로 보아, '채색한 구름'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05 이 작품은 화자인 춘향의 말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으로 인한 좌절을 그려 내고 있다.

06 이 작품에서 '바다'와 '하늘'은 모두 이상 세계, 초월적 세계를 의미한다.

07 이 작품에서 '산호'와 '섬'은 배의 운항을 방해하는 것들로, 화자를 구속하는 현실적 제약, 장애물을 의미한다.

08 **표현**

이 작품에 인간과 자연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이상과 현실 혹은 지향과 좌절의 대립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호소하는 듯한 어조로 그네를 밀어 달라고 말하여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인 춘향이 청자인 향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1연에서 '배를 내려 밀듯이' 향단에게 그넯줄을 밀어 달라는 화자의 소망은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자각한 후에도 5연에서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밀어 달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심화되고 있다.
- ⑤ '밀어 올려 다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화자·대상

5연에서 한계를 인식한 후에도 '밀어 올려 다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체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5연은 의지적이고 간절한 어조로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1연의 '머먼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하므로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잘 드러나도록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2연에서는 화자로 하여금 현실에 애착을 갖게 하는 소재들을 제시하면서도 그것들로부터 밀어 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애착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도록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3연에서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느낌표를 사용하여 화자의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느낌표가 쓰인 마지막 행은 격정적인 어조로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4연의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는 숙명적 한계를 깨달은 것이므로 좌절감이 드러나는 어조로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알아두기 「추천사」에 나타난 내용과 형식의 관련성

1연	그네가 상승하기 직전의 상황을 표현함. 1연의 2~4행은 1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 천천히 읽게 되는데, 이러한 느린 속도감은 그네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여 하늘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함
2, 3연	그네가 상승하는 모습을 형상화함. 말이 촘촘하게 이어지면서 1연에 비해 행 길이가 길어져 빠르게 읽게 되며, 그네가 하늘을 향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함. 그리고 '밀어 올려 다오'라는 시구의 반복으로 춘향의 욕망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을 보여 줌
4연	그네가 하강하는 모습을 표현함. 다른 연에 비해 행이 2행으로 짧아지고 템포가 느려지면서 이상 세계로 갈 수 없다는 좌절을 느끼는 춘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함
5연	1연의 반복 형태가 나타나면서 춘향을 통해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보여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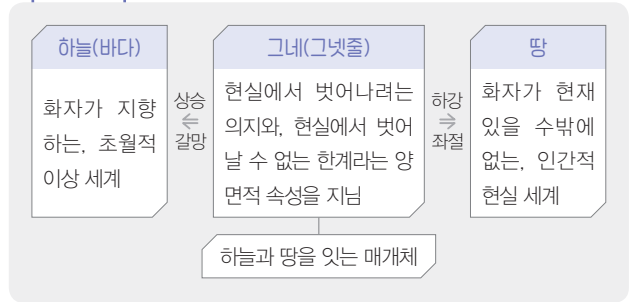
10 시어(구)

〈보기〉에서 '이 집'은 나로 하여금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그넯줄' 역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라는 양면적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 오답 풀이** ② ㉡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 ③ ㉢ '수양버들나무'는 화자가 현실에 애착을 갖게 하는 소재이다.
- ④ ㉣ '산호'는 화자가 가진 현실의 제약, 장애물을 의미한다.

- ⑤ ㉤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밀어 올려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바람'은 화자가 이상 세계로 향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나타낸다.

알아두기 「그네(그넯줄)」의 상징적 의미



11 시어(구) + 주제

'울렁이는 가슴'은 초월적 세계를 향한 벅찬 가슴, 곧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이상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 오답 풀이** ①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꾀꼬리들'은 화자가 현실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갖게 하는 대상이기에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떨쳐 내야 할 대상이다.
- ② 화자는 그네를 타고 '하늘'에 닿고 싶어 하므로 '하늘'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 세계이다.
- ④ '서(西)으로 가는 달'은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라는 숙명 때문에 현실적 제약에 매여 있는 화자와 대조된 모습을 보인다.
- ⑤ 화자는 4연에서 숙명적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5연에서 다시 밀어 올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이상 세계를 향한 굳은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배경지식 + 고전 소설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시

박재삼, 「수정가」	이몽룡과 이별한 춘향의 그리움과 한의 정서가 드러남
김영랑, 「춘향」	죽음을 무릅쓰고 일편단심을 지키는 춘향의 애절한 정절을 세조에게 맞서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사육신과 축석루에서 순국(殉國)한 논개의 애국심에 대응시켜 노래함
서정주, 「춘향유문」	춘향의 마음을 검은 물, 구름, 소나기로 대비하여 생사를 초월한 사랑의 결합을 노래함
강은교, 「춘향이의 꿈 노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춘향의 꿈 내용을 소재로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함

+ 독해 체크

본문 030쪽

- ① 현실 ② 이상 ③ 한계 ④ 대화체 ⑤ 운율
⑥ 그네 ⑦ 하늘 ⑧ 달

+ 어휘 체크

본문 031쪽

- 1 (1) 베갯모 (2) 장애품 (3) 모티프
2 (1) ㉠ (2) ㉡ (3) ㉢

05

눈 김수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적, 비판적, 의지적, 참여적

주제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특징

- ‘눈’과 ‘가래’의 상징적 의미가 대립 구조를 이룸
-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함
- 문장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감을 살림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밤 06 가래
07 젊은 시인

실력 문제

08 ⑤ 09 ⑤ 10 ① 11 ④

- 01 이 작품에서 ‘눈’은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02 이 작품은 1연과 3연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라는 문장을, 2연과 4연에서는 ‘기침을 하자’라는 문장을 변형하여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03 이 작품의 화자는 불순한 것을 떨쳐 버리려는 태도를 단호하고 의지적인 어조로 드러내어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04 이 작품에서 ‘기침을 하는’ 행위는 가래(불순한 것)를 뱉어 내는 행위로, 순수한 내면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자 자기 정화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05 이 작품에서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라는 표현은 어두운 시대 상황에서 불순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 내려는 화자의 노력을 보여 준다. 따라서 ‘밤’은 어두운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
- 06 ‘눈’은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를 상징하는 반면에 ‘가래’는 더럽고 불순한 것을 상징하므로, 두 시어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 07 이 작품의 2연에서는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라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젊은 시인’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 살아 있는 것을 보며 기침을 할 용기를 갖게 되는 화자이자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기침을 하는 행위는 곧 ‘눈’처럼 순수한 존재가 되기 위한 화자의 노력에 해당한다.

08 정답과 해설

08 화자·대상 + 표현

이 작품은 평서형 종결 어미 ‘-다’ 또는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감탄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적 어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눈, 기침, 가래, 밤’과 같은 일상어에 각각 ‘순수한 존재, 자기 정화 행위, 불순한 것, 어두운 시대 현실’ 등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② 이 작품의 2연과 4연에서는 ‘-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청자로 하여금 함께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있다.

③ 1연과 3연에서 ‘눈은 살아 있다’를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2연과 4연에서 ‘기침을 하자’를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순수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로, ‘눈’은 순수한 존재를 의미하고 ‘가래’는 불순한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기침’을 통해 ‘눈’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지는 ‘가래’를 뱉어냄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순수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09 화자·대상 + 시어(구)

㉠ ‘젊은 시인’은 이 작품의 화자이자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정의롭고 순수한 세상을 추구하는 정치인(ㄷ)과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가진 노동자(ㄹ)가 ㉠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일상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직장인은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본가는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과 거리가 멀다.

㉣. 불합리한 것을 보고 모르는 체하는 공무원은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과 거리가 멀다.

알아두기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눈	• 깨끗함, 순수함, 진정한 가치 •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기침	• 가슴 속에 고여 있는 불순한 것을 뱉어 내는 행위 • 자기 정화 행위
젊은 시인	• 순수함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 화자이자 작가 자신
가래	• 더러움, 불순한 것, 부정적인 것 • 부정적인 현실에서 생긴 속물근성, 소시민성 등

10 어휘

㉠의 ‘대고’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거나 향하고’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였음을 나타낸 ①의 ‘대고’이다.

오답 풀이 ② ‘이유나 구실을 들어 보이고’라는 뜻이다.

③ ‘무엇을 어디에 달게 하고’라는 뜻이다.

④ ‘차, 배 따위의 탈것을 멈추어 서게 하고’라는 뜻이다.

⑤ ‘다른 사람과 신체의 일부분을 달게 하고’라는 뜻이다.

2연의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 기침을 하자'는 4연의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빨자'로 변주되었으므로, '마음 놓고'가 '눈을 바라보며'로 변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에 '떨어진', '마당 위에 떨어진'이 점층적으로 덧붙으면서 상황이 구체화된다.

② 1연의 내용은 3연에서, 2연의 내용은 4연에서 변주된다.

③ 1연과 3연은 '눈은 살아 있다'를 중심으로 내용을 덧붙인 변주가 나타나고, 2연과 4연은 '기침을 하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덧붙인 변주가 나타난다.

⑤ 4연에서는 '기침을 하자'가 좀 더 더러운 것을 김숙한 곳에서부터 빨아 내려는 의지를 담은 '가래라도 마음껏 빨자'로 변주된다.

알아두기 반복과 변형을 통한 주제 강조



배경지식 + 참여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눈」

참여 문학은 작품 창작을 통해 현실 문제에 개입하는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우리 문학에서 참여 문학은 1950년대 중후반 이후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작가들의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에 대한 항거 의식을 담은 4·19 혁명을 기점으로 참여 문학이 활발해졌다. 분단과 통일, 민족의식 등을 바탕으로 한 참여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수영, 신동엽, 고은, 김지하 등이 있다. 김수영 작가가 쓴 「눈」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담은 대표적인 참여시로 꼽힌다.

+ 독해 체크

본문 034쪽

- ① 눈 ② 순수 ③ 죽음 ④ 의지적 ⑤ 비판
⑥ 생명력 ⑦ 기침 ⑧ 반복

+ 어휘 체크

본문 035쪽

- ㉠ - ㉡ - ㉢ - ㉣ - ㉤

06

추억에서 _박재삼

본문 036~037쪽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애상적, 서정적, 향토적

주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한(恨)

특징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한(恨)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구체적 지명과 경상도 방언의 사용으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은전
06 골방 07 한

실력 문제

- 08 ① 09 ④ 10 ⑤ 11 ⑤

01 이 작품의 화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회상적이고 애상적인 어조가 나타나며, 화자의 신념을 드러내는 의지적 어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1연의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에서 어두워진 저녁의 쓸쓸한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03 작품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 첫 연과 마지막 연은 형태나 내용상에 유사점이 없다.

04 2연에서 팔고 남은 생선의 눈깔에서 '은전'을 연상하는 한편, 4연에서 남몰래 흘렸을 어머니의 눈물을 달빛 아래 '옹기들'의 반짝임에 빗대어 나타냄으로써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다.

05 이 작품에서 화자는 '남은 고기 몇 마리의 / 빛 발하는 눈깔'에서 '은전'을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은전'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벗어나기 힘들었던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恨)을 환기하고 있다.

06 이 작품에서 '골방'은 어린 시절 화자와 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둡고 좁고 외로운 현실 공간이다. 이는 '밝고 빛나는 별들이 놓인 발'을 의미하며 소망의 세계를 상징하는 '별밭'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07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추억 속에서 가난하고 고단했던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점층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한(恨)'의 정서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08 표현

이 작품은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을 뿐, 미래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해 다 진 어스름', '빛 발하는 눈깔들', '은전',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한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ㄴ가', '-ㄴ코'와 같은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절제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진주 남강'이라는 지명과 '울 엄매', '오명 가명' 등의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느낌을 주고 있다.

⑤ '울 엄매야 울 엄매',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등에서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어머니의 한과 가난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종결 어미와 시구의 반복 효과

의문형, 추측형의 종결 어미 반복	'한이던가', '떨던가', '어 떠했을까', '것인가' 등	⇒ 어린 시절에 느꼈던 슬픈 감정을 직접 토로하지 않음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드러냄
시구의 반복	'울 엄매야 울 엄매', '오명 가명',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 운율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09 시어(구)

'울 엄매'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상도 방언으로, 화자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려 주는 시어이자 화자의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과 안타까움이 담긴 시어이다.

오답 풀이 ① '은전'은 화자와 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였으나 가질 수 없어 한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② '별발'은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로, 가난하고 외로운 오누이가 처한 상황과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시어이다.

③ '골방'은 좁고 좁은 방으로, 어머니를 기다리는 오누이가 머무는 공간이다.

⑤ '웅기'는 달빛을 받아 반짝거림으로써 어머니의 눈물과 연결되는 소재이다.

알아두기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울 엄매	우리 엄매, 울고 있는 엄매(가난으로 한이 맺힌 어머니를 떠올리게 함)
은전	만져 볼 수 없는 물질, 소유할 수 없는 부
별발	삶의 위안을 가져다주는 대상, 희망과 소망의 공간, 이상적 세계
골방	좁고 가난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공간, 절망적 세계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	한으로 채워져 글썽이던 어머니의 눈물

10 시어(구) + 표현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은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물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해가 진 뒤의 어두운 상태로, 어둡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팔리지 않고 남은 고기의 '빛 발하는 눈깔들'에서 '은전'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은전'은 가질 수 없는 '손 안 닿는' 것이기에 어머니의 '한'을 느끼게 한다.

③ '울 엄매야 울 엄매'에서 '울 엄매'는 '우리 엄마' 또는 '우는 엄마'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복을 통해 어머니의 삶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강조한다.

④ '손 시리게 떨던가'는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 화자와 누이의 모습으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추위와 가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1 화자·대상

'장면 3'은 '진주 남강'이 맑다고 하지만 오며 가며 신새벽이나 밤빛 아래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그려진 부분이다. 화자는 그러한 어머니의 삶에 연민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진주 남강의 풍경을 통해 위로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진주 장터'가 배경으로 드러나는 1, 2연에는 생계를 위해 어두워진 밤까지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2연에서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는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고기를 다 팔지 못한 어머니의 고단한 삶과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골방'이 배경으로 드러나는 3연에서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며 손 시리게 떨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어머니가 진주 장터를 오가는 길이 그려진 4연에서 어머니에게 진주 남강은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이었다고 한 것을 통해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다녔음을 알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38쪽

- ① 골방 ② 눈물 ③ 어머니 ④ 별발 ⑤ 은전
⑥ 한 ⑦ 의문 ⑧ 운율

+ 어휘 체크

본문 039쪽

- ㉠ - ㉡ - ㉢ - ㉣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역동적

주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나무

특징 • 나무를 의인화하여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냄
• 상승적,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나무의 굳센 의지를 보여 줌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겨울
06 그러나 07 꽃

실력 문제

08 ② 09 ⑤ 10 ② 11 ②

01 이 작품의 화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이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02 이 작품의 시상 전개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03 이 작품은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에 관한 내용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04 이 작품에서 나무는 힘겹게 벌을 받는 모습이나 의지를 품고 부정적 상황을 거부하는 존재로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05 이 작품은 '겨울'로 상징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스스로 극복하고 '봄'이 되어 마침내 꽃을 피우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의 대립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나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6 이 작품은 9행의 '그러나'를 경계로 하여, 묵묵히 고통을 견디는 나무의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나무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07 이 작품의 후반부에 나타난 '봄-나무'의 모습은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이 되고',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로 구체화되고 있다.

08 **표현**

이 작품에서는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 온몸이 으스스지도록 / 으스스지도록 부르티지면서 / 터지면서'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싹을 틔우려는 나무의 의지적인 태도와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9행의 '아 별받은 몸으로'와 21행의 '아아, 마침내, 끝끝내'

에 '아, 아아'와 같은 감탄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각각 나무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나무의 의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상에게 느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③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인 나무가 이동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동하는 공간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작품에는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나 모양을 흉내 내는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작품에서는 시적 대상인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알아두기 유사한 시구의 반복 효과

이 작품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나무의 상황과 태도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	⇒	나무의 자립성과 생명력을 강조함
'별받은 자세로 서서 / 아 별받은 몸으로, 별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	나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함
•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 '온 몸이 으스스지도록 / 으스스지도록 부르티지면서'	⇒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나무의 의지를 강조함

09 시어(구)

'마침내, 끝끝내'에는 겨울-나무가 의지를 갖고 시련을 이겨 낸 끝에 결국 봄-나무가 되어 꽃을 피워 낸 것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담겨 있다. 겨울-나무가 경험하는 절망감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대가리 쳐들고'는 나뭇가지를 위로 뻗고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끈기있게 서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② 앙상한 나뭇가지가 위로 향한 모습을 '두 손 올리고'라고 표현하고 이를 '별받은 자세'라고 한 것은 나무를 의인화하여 겨울의 추위라는 고난이 가해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③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는 앙상하던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봄-나무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나무가 생명력과 열정, 강렬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표현한다.

④ '하늘 들이받으면서'는 나무가 위로 자라며 가지를 뻗어 가는 모습을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알아두기 '겨울-나무'와 '봄-나무'의 모습

겨울-나무		봄-나무
• '영하 13도 / 영하 20도': 가혹한 상황에 놓임 • '무방비의 나뭇': 헐벗은 모습임 • '온몸을 뿌리 박고', '두 손 올리고 별받는 자세로 서서': 고난과 시련을 겪음	⇒	•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하늘 들이받으면서': 저항적 태도와 상황 변화 의지를 보임 •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이 되고', '꽃 피는 나무':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로 고통을 극복하고 자기완성을 이룸

10 화자·대상 + 시어(구)

㉠은 나무가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난 뒤 ‘푸른 잎’이 되는 과정이 ‘천천히, 서서히, 문득’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이는 겨울-나무가 봄-나무로 변화하는 과정이 비록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 대상에게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③ 이 작품의 화자는 대상인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은 대상에게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화자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⑤ ㉠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 보기 어려우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도 않다.

11 화자·대상 + 시어(구) + 주제

㉡에서 나무가 버티고 거부하는 모습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이고 가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는 별반는 모습으로 굴욕적인 상태에 있던 나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는 이후 강한 의지로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③ ㉡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서면서 이를 이겨 내려는 나무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준다.

④ ㉡는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의미한다.

⑤ ㉡는 나무가 ‘자기의 온몸으로’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변화한 것을 강조하므로, 나무의 주체성과 자발성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지식 + 황지우의 작품 세계

작가 황지우(1952~)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섬세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1980년대라는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지적인 언어로 표현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 독해 체크

본문 042쪽

- ① 겨울 ② 거부 ③ 생명력 ④ 극복 ⑤ 감탄
⑥ 의인화 ⑦ 의지 ⑧ 꽃 ⑨ 그러나

+ 어휘 체크

본문 043쪽

- 1 (1) 기립 (2) 나뭇 (3) 거부
2 <가로> ① 의인화 ③ 상징적
<세로> ① 의지 ② 영상 ④ 역동적

12 정답과 해설

08

도산십이곡_이황

본문 044~045쪽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12수)

성격 관조적, 예찬적, 교훈적

주제 자연에 대한 감흥과 학문 수양의 의지

특징 •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냄
• 대구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자연
06 가던 길 07 청산

실력 문제

- 08 ⑤ 09 ④ 10 ② 11 ②

01 <제1수>~<제6수>는 자연 속에 은거하는 감흥을, <제9수>와 <제11수>는 학문 수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02 <제1수>의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한하리에서 ‘초야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가리킨 말이다.

03 <제3수>의 ‘순풍(淳風)’은 사라지지 않은 순박한 풍속이고, ‘인성(人性)’은 어진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둘의 의미가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04 <제4수>의 종장에서 ‘피미일인(彼美一人)’, 즉 임금을 ‘더욱 잊지 못하리’라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5 <제6수>에서는 봄바람에 꽃이 산을 가득 채우고, 가을밤에 달빛이 누대를 가득 채운 풍광, 즉 자연의 모습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06 <제9수>에서 화자는 고인, 즉 옛 성현이 ‘가던 길’이 앞에 있다고 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 따라서 ‘가던 길’은 옛 성현들이 추구했던 삶을 의미한다.

07 <제11수>에서 화자는 ‘청산(靑山)’과 ‘유수(流水)’의 한결같은을 본받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萬古常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08 표현

<제6수>의 종장에서는 자연의 오묘한 조화와 이치가 끝도 없다는 감탄의 정서를 ‘어찌 끝이 있으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수>에서 ‘어떠하며’, ‘어떠하리’와 같은 유사한 시어를 반복하였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② <제2수>는 초장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대상에게 바라는 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③ <제3수>에서 '거짓말'과 '옳은 말'이 대조를 이루었으나, 이를 통해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즉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인성이 어질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라고 하며 인간의 어질고 착한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낸 뒤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연쇄법을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교훈 또한 제시하고 있지 않다.

09 화자·대상 + 시어(구)

'갈매기'와 달리 ㉠ '교교백구(皎皎白駒)'는 자연을 멀리하는 어진 이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화자의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 '천석고황(泉石膏肓)'은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병을 가리키는 말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화적 태도를 병에 빗댄 표현이다.
- ② 화자는 ㉠ '인성(人性)'이 어질다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③ 화자는 ㉠ '유란(幽蘭)'이 골짜기에 피어 있어 자연이 듣기 좋다며 감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은 화자가 감상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 ⑤ ㉠ '화만산(花滿山)'은 꽃이 산을 가득 채운 경치로,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다.

알아두기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 구절

<제2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	자연과 동화된 모습이 드러남
<제4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이 듣기 좋구나 /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항기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피었으니 자연이 듣기 좋고 흰 구름이 산에 걸려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다)	⇒	아름다운 자연과 그에 대한 감흥이 드러남
<제6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봄바람에 꽃이 산 가득 피었고 가을밤에 달빛이 누대를 가득 채웠다)		

10 주제

<제9수>에는 '고인', 즉 옛 성현이 가던 길을 따라 학문 수양을 하겠다는 다짐이, <제11수>에는 '청산'과 '유수'처럼 쉽 없는 태도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즉 [A]에서 화자는 학문을 수양하는 삶에 대한 지향을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제11수>에 '청산', '유수'라는 변함없는 자연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제9수>에서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그것을 따라 학문 수양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성현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제11수>에 '청산', '유수'라는 변함없는 자연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제9수>에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흐름이, <제11수>에는 '만고'나 '주야'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알아두기 화자의 학문 수양의 의지

청산	유수
항상 푸르름	그치지 아니함
↓	
만고상형	청산과 유수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고자 함

11 화자·대상 + 주제

⑥에서는 순박한 풍속이 사라졌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순박한 풍속에 대한 긍정을 담고 있으므로, 작가가 안동 지역의 풍속을 바로잡으려 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은 태평성대에서 늘어 가는 화자가 바라는 일은 오로지 허물이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작가가 안동에서 추구했던 삶의 모습은 세속적 욕망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것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피미일인(彼美一人)', 즉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작가가 임금에 대한 충심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 포함된 <제9수>는 작품의 후반부로, 학문 수양을 하는 심경을 노래한 부분이다. ㉠에서는 '고인'들이 가시던 길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어찌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학문의 도리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가 포함된 <제11수>는 작품의 후반부로, 학문 수양을 하는 심경을 노래한 부분이다. ㉠은 '청산'과 '유수'의 한결같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치지 말고 정진하자고 다짐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작가가 은거하던 곳의 자연의 모습에서 학문 추구의 자세에 대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46쪽

- ① 자연 ② 학문 ③ 천석고황 ④ 유수 ⑤ 대구
⑥ 고인 ⑦ 감흥 ⑧ 수양

+ 어휘 체크

본문 047쪽

- 1 (1) 유수 (2) 연하 (3) 태평성대
2 <가로> ① 백운 ③ 천석고황
<세로> ② 윤영천광 ④ 만고상형

2. 산문 문학

본문 050~051쪽

12월 01

상대 1 _염상섭

갈래 장편 소설, 세태 소설, 가족사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주제 일제 강점기 중산층 가정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과 세대 간 갈등

특징

- 당시의 세태와 풍속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중산층의 서울말을 구사하여 현실성을 부여함
- 각 세대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함

확인 문제

01 × 02 ○ 03 족보 04 돈

심력 문제

05 ④ 06 ① 07 ⑤

01 (가)~(나)에서 조 의관은 영악하고 셈이 빠른 모습을 보인다. 가문을 중시해 족보 꾸미기와 치산에 큰돈을 쓰고는 있지만, 자신의 셈속을 따지지 않고 어수룩하게 돈을 내놓는 사람 아니다.

02 상훈은 '꾸어 온 조상'이라는 말로 족보 꾸미기와 치산에 반감을 드러낸다. 새로 모셔 온 조상은 돈을 주고 족보에 이름을 넣어 생긴 조상이지 자신의 진짜 조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03 앞부분 줄거리에서 조 의관은 돈을 주고 의관이라는 벼슬을 샀으며, '족보'인 대동보를 엮는 데 큰돈을 썼다고 하였다.

04 창훈은 다른 조가의 딸거리들과 마찬가지로 조 의관의 돈(재산)을 빼내려고 치산 사업을 벌이려 하는 것이다.

05 인물·사건

(가)에서 조 의관은 치산에 드는 비용을 내는 것을 일종의 기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조 의관이 문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치산을 위한 금액도 머릿속으로 계산해 생색을 낼 만큼만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 풀이 ① 조 의관은 가문을 중시해 족보를 사서 꾸미는 데 큰돈을 쓰는 봉건적 인물이다.

② 조 의관은 명분과 형식에 얽매어 가짜 조상의 묘막 짓기, 석물 세우기 등에 관심을 갖는 구시대적 인물이다.

③ (나)에서 조 의관은 치산에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생색을 낼 만큼 내어 놓을 돈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⑤ (나)에서 조 의관은 조씨들도 돈이나 힘을 보태는 등 묘막 짓기에 참여하라고 말한다.

06 서술

이 작품은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입장에서 사건의 속사정과 인물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오답 풀이 ② (가)~(다)에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어 서술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치산을 둘러싼 인물들의 서로 다른 속셈이 드러나 있을 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③ (가)~(다)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의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작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해 있다.

⑤ 이 작품은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속마음까지 아는 입장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07 인물·사건

상훈은 '치산'을 '꾸어 온 조상'을 받드는 쓸데없는 일이라 여기고, '장한 사업'이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이를 비아냥거린다.

오답 풀이 ① 조 의관은 치산을 자신이 이 세상에 남겨 놓고 가는 기념사업 정도로 생각한다.

② 조가의 딸거리들은 족보 꾸미기에 이어 치산을 통해 조 의관을 돈을 빼내려고 한다.

③ '○○당 할아버지가 묘막 지어 달라고, 제철 앞에 석물이 없어서 호젓하다고 하십니까?', '꾸어 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답디다.' 등의 말에서 치산에 대한 상훈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④ 창훈은 치산에 필요한 복잡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색을 내지만, 사실은 조 의관의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기 등장인물들의 특징

조 의관	구한말 세대(1세대), 유교적, 전통적, 보수적 인물, 가문과 명예를 중시해 족보와 치산 등에 관심을 가짐
상훈	개화기 세대(2세대), 기독교적, 개화적, 과도기적 지식인, 족보와 치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님
창훈	조상훈의 사촌 형, 조 의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속물 근성을 지님

본문 052~053쪽

01 상대 2

확인 문제

01 × 02 ○ 03 가치관 04 예배당 05 재산

심력 문제

06 ⑤ 07 ④ 08 ②

01 조 의관은 가짜 족보를 사서 꾸미는 과정에서 뇌물을 쓴 일 등이 떼뻗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사천 원을 쓰고도 한 천 원 썼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02 ‘조선어 사업 편찬회’는 일제 강점기에 조직된 모임으로,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 전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조 의관은 가문과 제사를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고, 상훈은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무시하고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조선어 사전 편찬에 관심을 갖는 등 개화기 지식인으로서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다. 따라서 조 의관과 상훈은 돈의 쓰임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04 ‘예배당’이란 단어에 나타나듯 상훈은 기독교인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반대한다. 유교적 가치관을 지니고 제사를 중시하는 조 의관은 이러한 아들이 몹시 못마땅한 것이다.

05 기독교인인 상훈이 제사를 배척하고 족보 문제로 조 의관과 갈등을 벌인 끝에, 조 의관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인 덕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하였다.

06 인물·사건 [A]와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상훈은 족보와 치산에 돈을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② 상훈은 아버지가 돈을 쓰는 용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하고 있다.
 ③ 조 의관은 기독교인인 아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유교적 장례 절차도 무시할 것이라고 반감을 드러내며 부자간의 연을 끊겠다고 말하고 있다.
 ④ 조 의관은 아들의 지적에 화를 내며 재산 상속 명단에서 빼겠다고 소리치고 있다.

07 인물·사건 + 어휘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므로, 공손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반대하는 상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조 의관은 족보 꾸미기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 데다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상황이 갑갑하면서도 어디다 말도 못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조의관의 심정을 표현할 말로는 ‘병어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이듯 한다는 뜻으로,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적절하다.
 ② 족보 꾸미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속이 쓰린 상황에서 ‘꾸어 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다’는 상훈의 말은 조 의관을 더 화나게 한다. 따라서 조 의관의 심정을 표현할 말로는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거나 성난 사람을 더욱 성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③ 조 의관 일가가 족보에 이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뇌물을 쓰느라 큰돈을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조 의관은 ‘실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올며 겨자 먹기’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⑤ 조 의관은 상훈의 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황이므로 상훈은 ‘일촉즉발(一觸即發)’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말로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의 ‘바람 앞의 등불’이 적절하다.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라)~(바)에 족보인 대동보를 만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상훈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상훈은 조 의관에게 족보를 만드는 데 큰돈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과 같은 데에 돈을 쓸 것을 조언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조 의관은 가문과 제사를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③ 조 의관은 큰돈을 들여 학교 사업을 하는 개화적 지식인이면서 남의 딸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훈의 위선적인 면모를 비난하고 있다.
 ④ 상훈은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등에 관심을 갖는 근대적, 개화적 인물이다.
 ⑤ 조 의관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아들 대를 건너뛰고 손자인 덕기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한다.

알아두기 ‘조 의관’과 ‘상훈’ 간의 갈등 양상

	조 의관	상훈
가치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양반 집안의 족보를 사서 꾸미고 치산을 하려는 등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함	제사와 족보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교육과 문화 사업에 관심을 갖는 등 근대적이고 개화적인 가치관을 중시함
재산 상속	아들인 상훈 대신 손자인 덕기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함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고자 함

01 삼대 3

본문 054~05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이해타산 04 변호사

실력 문제

05 ② 06 ④ 07 ①

01 상훈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덕기를 조종할 마음으로 덕기의 진로에 개입하려 한다. 즉, 덕기를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 덕기의 진로에 대해 물으며 경성 제대를 권하는 것이다.

02 (사)에서는 '부친'으로 서술되다가 (아)에서는 '상훈'으로 서술되는데, 상훈으로 서술되는 부분부터 조 의관의 재산에 대한 상훈의 계획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아들 덕기와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부친'이라는 호칭 대신 '상훈'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상훈의 생각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상훈은 자기 대를 걸러서 덕기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고려하여 덕기를 자기 손에 쥐고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인다.

04 병화는 장래에 '변호사'가 되겠다는 덕기의 말에 “흥, 자네는 전선(戰線)의 후부에 있어서 적십자기(旗) 뒤에 숨어 있겠다는 말일세그려?”라는 말로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덕기의 태도를 비판한다.

05 인물·사건

상훈은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는 인물로, 자신이 재산 문제에 직접 나설 형편이 안 되자 덕기를 꼭 붙들어 앉혀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한다.

오답 풀이 ① (사)에서 덕기는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어 경도 제대에 갈 생각을 했었으나, 부친의 말대로 경성으로 오게 되면 와도 그리 싫을 것도 없다고 하였다.

③ (사)~(자)에서는 덕기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상훈의 속셈만 제시될 뿐, 덕기가 이러한 상훈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자)를 통해 덕기가 법과에 진학하려고 다짐한 것은 조선의 형편과 자기 분수를 고려하여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 (아)에서 상훈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덕기의 비위를 맞추고 달래고자 한다.

⑤ (자)에서 병화는 사회 문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려는 덕기의 태도를 비웃고 있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덕기가 '무산 운동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냉담히 방관할 수 없'다는 내용만 제시될 뿐, 병화가 무산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덕기를 설득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6 인물·사건

[A]에서는 조부와 부친의 방임 아래 덕기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던 점을 들어 덕기가 재주도 있거니와 철도 일찍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부친이 ㉠과 같이 말한 것은 덕기를 옆에 두고 이용하기 위해서이지 덕기의 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덕기의 학업에 무관심했던 평소 모습과 다르게 덕기의 학업과 진로에 관심을 보이는 상훈의 물음은 덕기에게 뜻밖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② 지금까지 덕기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결정했기에 경도 제대에 들어간다는 것도 덕기가 혼자 생각하여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경도 제대에 들어갈까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덕기가 그만큼 재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덕기의 진로에 관해 방임으로 일관해 왔던 상훈이 조언을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07 배경·소재

(자)에서 덕기가 '간호졸(㉡) 격으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한 것은 덕기가 '제 분수'와 '조선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덕기는 무산 운동이라는 사상적 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성격과 처지도 아니고, '책상물림의 뒷방 서방님'으로 일생을 마치기도 싫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군의총감'은 병화가 무산 운동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덕기를 비아냥거리며 한 말이다.

㉡ 덕기는 스스로 '제일선에 나서서 싸울' 성격도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 '책상물림의 뒷방 서방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삶을 말하며, 덕기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알아두기 '병화'와 '덕기'의 현실 대응 방식

병화	↔	덕기
- 급진적 사회주의자 -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김		- 중산층의 보수주의자 - 중도적이고 절충적이며 사회주의 운동에 소극적으로 동조함

01 상대 4

본문 056~05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정미소 05 위선자

실력 문제

06 ⑤ 07 ② 08 ④

01 이 작품은 1930년대 중산층의 서울 말씨를 구사하여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02 '입을 막다'는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겐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자)에서 상훈이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고 한 것은, 세간 값을 많이 쓴 것에 대해 아들이 탓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03 (자)에서 상훈은 아들인 덕기가 정미소 장부를 내어놓지 않고 자신이 하려는 일에 간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덕기는 세간에 돈을 치르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

04 (자)에서 상훈은 덕기에게 '정미소' 장부를 내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다.

05 (카)의 내용으로 보아 상훈은 남의 눈을 꺼리고 소문을 무서워하는 '위선자'였으나, 부친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체면도 벗어던지는 모습을 보인다.

06 인물·사건

(차)에서 덕기는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는 걸 반대’했으면서 세간 값을 과하게 쓰고서 자기에게 이를 치르라고 하는 부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상훈(부친)이 산소에 돈을 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상훈(부친)은 자신의 부친이 쓸데없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반대했으면서도 덕기에게 세간 값을 치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는 부친인 조 의관의 전통적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어 서가 아니라 몰욕에 눈이 어두워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려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여기기 때문에 상훈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② 덕기는 상훈이 재산을 낭비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정미소 장부를 상훈에게 넘기지 않는다.

③ 덕기는 위선자이기는 하나 이전에 상식적인 보통 사회의 사람처럼 행동했던 아버지가 체면을 벗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여 탄식한다.

④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기 위해 자식 앞에서 체면도 벗어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알아두기 '상훈'과 '덕기' 간의 갈등 양상

상훈(부친)	덕기(아들)
• 세간을 과하게 사들여 아들에게 값을 치르라 함 •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없는 정미소를 차지하려 함	• 세간 값으로 치려야 할 돈을 낭비라고 생각함 •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음

07 주제

이 작품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삼대가 겪는 갈등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사회상과 그에 따른 인물의 현실 대응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작가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근대적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의도로 이 작품을 쓴 것이 아니라,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③ 이 작품의 작가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 편입되는 시대의 사회상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④ 이 작품에서 조 의관의 가족은 식민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물질에 대한 욕심 등으로 몰락한 것이다.

⑤ 이 작품에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두기 작가의 창작 의도

삼대
• 조의관: 구한말 1세대, 봉건주의자 • 조상훈: 개화기 2세대, 개화주의자 • 조덕기: 식민지 3세대, 중도주의자

창작 의도

가족 간 벌어지는 재산을 둘러싼 갈등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등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려고 함

08 서술

(카)에서는 장면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은 덕기로, 서술 대상은 부친(상훈)으로 고정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의 시각에서 부친이 종교고 가면이고 다 집어던지고 흥분해졌을지도 모르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 덕기는 부친을 위선자이기는 하여도 상식적 보통 사회의 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지금은 돈 앞에서 체면마저도 버리고 타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⑤ 흥분한 부친과의 갈등을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덕기의 모습에서 그가 온건한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덕기의 시각에서 포착된 부친은 체면을 중시하는 위선자에서 돈 때문에 타락해 버린 인물로 드러나 있다.

배경지식 사실주의 소설

사실주의 문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즉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사실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하는 것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사실주의 소설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인물의 전형성이다. 전형적인 인물을 통해 그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현실의 모순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주의 소설은 문학을 통해 현실 세태를 여실히 보여 주며, 당대의 문제점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주의 소설은 1920~30년대에 등장했는데, 이 시기의 사실주의 소설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소설로는 염상섭의 「만세전」, 「삼대」, 현진건의 「빈처」, 「운수 좋은 날」 등이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58쪽

- ① 갈등 ② 재산 ③ 전통적 ④ 족보 ⑤ 근대적
⑥ 돈 ⑦ 사실적 ⑧ 세대

+ 어휘 체크

본문 059쪽

- 1 (1) 농간 (2) 위선자 (3) 이해타산 (4) 대거리
2 <가로> ② 주력 ③ 난봉
<세로> ① 방임주의 ④ 수봉

- 갈래** 현대 소설, 심리 소설, 모더니즘 소설, 세태 소설
성격 심리적, 관찰적
주제 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
특징
 - 한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됨
 - 당대 서울의 풍경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줌
 - 하루에 걸쳐 여정이 시작된 원점으로 회귀하는 여로형 구조를 보임

확인 문제

01 ○ 02 ○ 03 치마 04 동경

실력 문제

05 ③ 06 ④ 07 ③

- 01 (가)에서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 놓는다고 한 것과, (나)에서 글을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들은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동경엔 건너가 공불 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보면 어머니는 아들이 취직을 못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아들은 글을 팔아 구한 몇 푼의 돈으로 어머니께 치마를 해 드리는데, 이때 ‘치마’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4 (다)를 통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에 건너가 공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5 **서술**
 (가)~(다)에서 서술자는 어머니의 내면 심리만 직접 서술하고 있을 뿐, 아들 등 다른 사람의 내면 심리는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의 사랑은 보수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 줄 때, 그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 준다.’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머니는 얼마든지 뻔뻔스러울 수 있다.’ 등에 서술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나 있다.
 ② 거의 모든 문장에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문장의 끊어 읽기를 유도하고 있다.
 ④ ‘대체 무얼 사 줄 테냐. 무어든 어머니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래두 좋으냐. 네.’와 같이 큰따옴표 없이 인물 간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⑤ (가)의 시작 부분에 ‘아들은’을 소재묵처럼 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알아두기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소재목 설정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현재형 어미	독자에게 현장감을 줌
만연체 문장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드러냄
심표의 빈번한 사용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고,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냄

06 인물·사건

- (다)에서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오 고도 회사나 관청 등에서 일만 잘하는데, 동경에 유학까지 다녀온 자기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글을 팔아 돈을 구한 것을 두고 ‘직업을 가지지 못한 아들이, 그래도 어떻게 몇 푼의 돈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에서도 어머니는 동경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② (나)에서 아들은 치마 두 감의 가격을 듣고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하지만, 어머니가 형수에게 치마를 양보하자 이내 넉넉하다며 웃감을 갖다 끊으라고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았다.
 ③ (다)의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 놓고 있을 때 옆에서 무슨 말이든 하면 언제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였다.

알아두기 발단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어머니’의 특징

어머니 발단 부분에서 서술의 초점이 어머니에게 있음

- 중심인물인 아들 구보 씨의 현재 상태를 어머니의 시점에서 소개함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지만, 장가도 못 간 아들이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도 월급이 나오는 직장조차 잡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면서도 안쓰럽게 여김

07 인물·사건

- ㉔은 어머니가 아들의 별이가 신통치 않은 것을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마와 맘머느리의 치마를 같이 해 주는 것에 아들이 부담을 느끼는 듯하자 맘머느리의 치마만 해 주라고 양보하려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어머니는 뭐 잡수시고 싶은 것이라도 있느냐는 아들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아들을 생각해서 ㉑과 같이 선물을 사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㉔에서 아들이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하는 것은 치마 두 감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닌 자기 처지에서 부담이 되어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웃감을 끊으라며 돈을 내놓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아들이 어렵게 번 것을 알기에 ㉔과 같이 선포 받기를 망설이고 있다.
 ⑤ ㉔은 어머니가 아들이 해 준 치마를 자랑하는 일이 자주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글을 팔아 돈을 버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 줄 만큼 돈을 버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0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②

본문 062~06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무의미 05 외로움

실력 문제

06 ③ 07 ③ 08 ⑤

- 01 구보는 대낮에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신의 시력을 저주하며, 열병으로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 때문에 안과에 갔던 일을 떠올리고 있다.
- 02 구보는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즉, 전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간 것이다. 구보가 전차를 탄 것은 백화점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 발 가는 대로 가다 도착한 안전지대에서이다.
- 03 이 작품의 서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구보의 행동뿐만 아니라 구보의 내면 심리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04 (라)에서 구보는 다리 곁에 가 서 있다가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하는데, 이는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무의미'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 05 (바)에서 구보는 전차가 오자 자기와 더불어 안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전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만 안전지대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꼈기 때문에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 06 인물·사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간 사나이의 얼굴에서 구보가 행복을 엿보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구보는 그저 그 사나이의 마추질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 뒤에 자신의 나쁜 시력을 저주하였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구보는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손에 든 단장과 공책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고 느낀다.

② (마)에서 구보는 백화점에서 본 가족의 눈에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이 가정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④ (바)의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로 보아 구보는 자신의 여정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향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바)에서 구보는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07 배경·소재

㉠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라는 점에서 구보로 하여금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고, ㉡은 갈 곳 없이 배회하는 구보와 달리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구보가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구보와 인연이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

② 구보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④ (마)~(바)에서 구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마)~(바)에서 ㉠과 ㉡을 통해 구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두기 '구보'가 관찰한 인물들의 특징

구보가 백화점에서 본 가족	단란한 행복을 맞본다는 점에서 구보와 대비됨
구보가 전차 정류장에서 본 사람들	행복한지는 알 수 없으나, 구보와 달리 다들 목적지가 있음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안전지대'는 사람들이 전차를 기다리는 장소이다. 구보는 발 가는 대로 가다가 안전지대에 도착한 것이지, 전차를 타러다가 안전지대로 피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행동을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사회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본능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구보는 대낮에도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 '시력'을 저주하는데, 이는 <보기>에서 제시한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무기력한 자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⑥ '총독부 병원 시대'에서 '총독부'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③, ④ ㉣ '백화점'은 일제 강점기에 쏟아져 들어온 근대 문물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고, 그 안에 있는 ㉤ '승강기'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알아두기 '구보'의 특징

구보	•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으나 글 쓰는 것 외에는 직업이 없음 • 무기력하지만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물로 치부함
----	--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1930년대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냄

0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③

본문 064~06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고독 05 병자

실력 문제

06 ① 07 ③ 08 ②

- 01 구보가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니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모양이 맥없다고 하였다. '맥없다'라는 말은 기운이 없다는 뜻이다.

02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를 통해 구보가 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경성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서로를 믿지 못한다. 이를 통해 각박한 도시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04 (사)에서 구보는 경성역에서 자신이 고독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경성역의 군중 사이에 '고독'이 있다고 하였다.

05 (아)에서 아이 업은 아낙네는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떨어뜨린 복숭아가 '병자'의 발 앞까지 굴러가자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해 버린다. 이러한 모습에서 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도시인의 비인간적인 모습과 차가운 태도가 드러난다.

06 인물·사건

(아)에서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구보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세도우씨병 환자의 좌우 좌석이 비어 있었다.

오답 풀이 ②, ③ (아)에서 구보는 중년의 시골 신사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자신의 만성 위화장을 새삼스럽게 떠올렸다. 그 후에 매점 옆으로 가 40여 세의 노동자를 보게 된다.

④ (사)에서 구보는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경성역으로 가서 자신의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⑤ (아)의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매에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통해 알 수 있다.

07 서술

구보는 늙고 쇠잔해진 모습의 노파에 대해 '팔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와 같이 추측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짐작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년의 시골 신사에 대해서도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등과 같이 자신이 짐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는 경성역 대합실에서 관찰한 노파와 중년의 시골 신사에 대해 구보가 짐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A]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A]에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그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A]에서 노파의 외모는 묘사했으나, 이를 통해 노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노파에 대한 연민의 태도가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중년의 시골 신사의 경우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인물·사건 + 서술

〈보기〉에서 이 작품은 도시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산책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도시를 배회하는 그의 여로를 따라 진행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도시를 배회하는 '산책자'는 경성역 대합실에 모여 있는 군중이 아니라 주인공 구보이다.

오답 풀이 ①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간 뒤 경성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다시 경성역을 떠난다. 이 작품은 이러한 구보의 여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③ 구보는 중년의 시골 신사가 늙고 쇠잔한 노파와 되도록 떨어져 앉으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현대인들의 속물근성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긴다.

④ 구보는 남대문을 나와 맥없이 앉아 있는 지게꾼들을 보고, 경성역 삼등 대합실에서 병에 걸린 40여 세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관찰한다. 이들은 구보의 눈에 비친 도시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주인공 구보는 소설가이다. 구보는 대합실에서 목격한, 현대의 각박한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그 내용을 기록하려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이처럼 세태에 관해 노트에 기록하려는 것은 현대의 풍속과 세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려는 것이므로, 〈보기〉에서 설명한 고현학의 기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이 작품의 표현 기법

고현학	일상생활의 풍속을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는 고현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당대 서울의 풍경과 세태를 묘사함
의식의 흐름	당대 서울의 여러 풍경을 관찰하면서 떠올린 구보의 생각들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구보의 무기력함과 고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0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④

본문 066~06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황금광 05 벗

실력 문제

06 ① 07 ④ 08 ④ 09 ⑤

01 구보는 자기와 같은 작가들까지 금광 브로커가 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보는 금광 브로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는 생각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황금에 열광하는 심리를 직접 보고 느끼며 이를 자신의 소설 창작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02 (자)의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를 통해 금광에서 큰돈을 버는 사람도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3 구보는 대합실 안팎에 있는 금광 브로커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는데, 이는 너도나도 황금을 좇는 세태가 씁쓸하고 안타깝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4 (자)의 '황금광 시대. /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와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를 통해 구보는 당시를 '황금광' 시대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5 (차)에서 구보는 우연히 '벚이라면 벚'일 수 있는, 중학 시대의 열등생이었던 사나이를 만났다. 그 사나이가 구보에게 차라도 먹자고 권하자 구보는 거절한 용기를 내지 못해 함께 차를 마시러 갔다.

06 **서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인 구보의 시선에서 그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구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하지만 구보가 서술자는 아니다. 서술자가 작품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1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② 너도나도 황금을 좇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③ 현재형 어미 '-ㄴ-/-는-'과 과거형 어미 '-았-/-었-'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④ (자)에는 개찰구 앞의 두 명의 사나이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차)에는 우연히 만난 중학 시대의 동창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또한 (차)에서 황금을 좇는 사람들과 그 세태를 묘사하여 1930년대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의 시대를 '황금광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⑤ 사건 간에 특별한 인과 관계 없이 구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배경지식 +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은 소설 속 인물의 의식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외부로부터 자극을 계속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연속된다. '의식의 흐름'을 소재로 하는 작품은 외부로 나타난 사건보다는 등장인물의 정신과 정서의 연속적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인간을 심리주의적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히 인상, 회상, 기억, 반성, 사색과 같은 심적 경험이 소설의 주요 소재가 된다.

07 인물·사건

㉔은 '해라'라는 반말의 말투가 차라리 덜 불쾌할 만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듣는 '자네'라는 말이 몹시 불쾌하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은 금광에 미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여 소설 창작에 활용하고 싶은 구보의 마음에 대한 서술이다.

② ㉔은 굳이 벚이라고 한다면 벚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우연히 만난 동창에게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구보의 심리를 드러내는 서술이다.

③ ㉔은 마지못해 반가운 척하며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려는 구보의 심리를 드러내는 서술이다.

⑤ ㉔은 차를 마시자는 호의를 거절할 만큼 용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구보의 성격을 드러내는 서술이다.

08 서술

㉔은 중학 동창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서술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관찰한 사실을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두 명의 사나이를 무직자라고 판단해 버리는 구보의 인식을 반영한 서술이므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㉔은 구보가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 결과 '그러한 인물들이' 곳곳에서 구보의 눈에 띄었다는 내용이므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㉔은 황금을 찾아 나서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 비해 진실할 수도 있다는 구보의 인식을 반영한 서술이므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㉔은 구보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고 느낀 바에 대한 서술이므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9 인물·사건

㉔에서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라는 것은 순수해야 할 시인들마저 금광을 좇을 정도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보는 이런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천한 인물이라도 연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중학 동창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지는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구보가 순수한 열정을 바쳐야만 인생의 처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없다.

③ 중학 동창이 황금광으로 나섰는지는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없다.

④ 구보는 중학 동창이 여전히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배경지식 + '구보'의 캐릭터를 물려받은 작품

산책자로서의 '구보'가 지식인의 내면에 비친 1930년대 경성의 세태를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었기에, 이후의 작가들이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빌린 작품을 창작하였다. 최인훈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연작 소설을 통해 1970년대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냈고, 오규원은 「시인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시를 통해 시인이 생활인으로서 갖는 인식을 표현하였다.

+ 독해 체크

본문 068쪽

- | | | | | |
|-------|------|-------|----------|------|
| ① 관찰 | ② 직업 | ③ 지식인 | ④ 병 | ⑤ 물질 |
| ⑥ 소재목 | ⑦ 심표 | ⑧ 산책 | ⑨ 의식의 흐름 | |

+ 어휘 체크

본문 069쪽

- 1 (1) 졸부 (2) 에누리 (3) 드난
2 (1) ㉔ (2) ㉔ (3) ㉔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성찰적, 회상적

주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애환

- 특징**
- 광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에 서사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로 재구성함
 - 중심인물 없이,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이력과 내면을 서정적으로 그려 냄
 - 회상과 성찰의 구조를 지님

확인 문제

01 ○ 02 × 03 완행 04 벽돌담

실력 문제

05 ⑤ 06 ② 07 ④ 08 ④

01 이 작품은 광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모티프로 한 소설로, 원작 시의 시구와 시의 주제, 이미지, 정서 등을 가져온 뒤, 여기에 작가의 서사적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더하여 재구성한 작품이다.

02 이 작품은 특정한 중심인물(주인공) 없이, 사평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아홉 명의 인물들의 삶의 이력과 내면 심리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년 사내와 청년은 대합실에 모인 인물들 중 하나이지, 중심인물은 아니다.

알아두기 초점 인물의 변화로 인한 효과

초점 인물의 변화 이 작품에서는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인물이 계속 바뀌고 있음



- 특정한 중심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당시 사회의 주변인들, 즉 소외된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세계를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음
- 한 인간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삶이 아닌, 당시 사회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음

03 가상의 시골 간이역인 사평역은 특급 열차가 서지 않고, 완행 열차만 가끔 정차하는 소외되고 외진 공간이다. 따라서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기다리는 열차는 ‘완행열차’이다.

04 (다)의 내용으로 보아, ‘벽돌담 저쪽의 세상’은 중년 사내가 오랜 시간을 보냈던 교도소임을 알 수 있다.

05 **인물·사건**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타려고 기다리는 열차는 연착 중인 완행열차이다. 사평역은 시골 간이역이므로 특급 열차는 서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여자들은 불기를 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한마디씩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였고, 덕분에 폭 가라앉아 있던 대합실이 부쩍 활기를 띠는 것 같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난로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은 어느덧 일곱으로 불어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열차를 기다리며 난로 주위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역장은 난롯불에 몸을 녹이는 승객들을 위해 톱밥을 가득 채운 바구니를 들고 왔으며, 이에 농부가 역장에게 추위에 고생한다며 얼른 인사를 차렸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았다고 하였다.

06 인물·사건

이 작품의 등장인물 중 농부와 농부의 아버지, 중년 사내, 청년, 미친 여자, 서울 여자, 춘심, 행상 아낙네 등은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저마다 삶의 애환을 지닌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들이다. 반면에 역장은 이런 인물들에게 온기를 나눠 주며 이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독자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① 농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읍내 병원에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인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이다.

③ 청년은 대학생이었으나 학생 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한 처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이다.

④ 미친 여자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이다.

⑤ 중년 사내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인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이다.

07 배경·소재

대합실 안의 사람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는 것은 ㉠ ‘특급 열차’가 아니라 ‘완행열차’이다.

오답 풀이 ①, ⑤ ㉠ ‘특급 열차’는 완행열차와는 대조되는 소재이자 산업화의 산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소외된 인물의 삶을 부각한다.

②, ③ ㉠ ‘특급 열차’는 정확하고 빠르지만, 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다.

08 서술

이 작품은 〈보기〉에 서사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재구성한 소설로, 이 작품과 〈보기〉 모두 막차를 기다리는 인물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화자는 작품 안에서 ‘나’로 등장하지만,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인 위치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제시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② 〈보기〉에서는 대합실에 모인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시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내면 심리까지 생생하게 제시한다.

③ 〈보기〉와 달리 이 작품의 인물들이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내용 전개에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인다.

⑤ 〈보기〉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성격과 삶의 내력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배경지식 + 객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의 전문과 해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툇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툇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서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찌르르 눈물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뻘이품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애상적, 감각적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회한과 그들에 대한 연민
특징	•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함 •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가 대조를 이룸 • 간결하고 절제된 어조로 대상을 표현함

03 사평역 2

본문 072~07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시계 04 퇴학

실력 문제

05 ③ 06 ① 07 ④ 08 ③

01 이 작품은 대합실 안의 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이 내용 전개의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대합실 안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현재의 시점과 각 인물의 과거 회상의 시점이 교차하며 서술된다.

02 (라)에서 중년 사내는 감방 동료였던 무기수 허 씨의 부탁으로 그의 노모를 만나기 위해 굴비 한 두름을 사 들고 산골 마을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미 오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허 씨의 칠순 노모를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게 된다.

03 (마)에서 역장이 '시계'를 보는 부분에서 현재 시점이 제시된다. 즉, '역장은 시계를 본다.'라며 역장의 시선으로 돌아오면서 중년 사내의 과거 회상을 다루던 시점에서 다시 대합실 안의 현재 시점으로 되돌아온다. 이후 역장은 청년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이어서 청년의 과거 회상이 전개된다. 이 작품에서 역장은 이처럼 각 인물의 개별적인 사연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04 (바)를 통해 청년은 동생이 다섯이나 있는 가난한 집의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가족들이 모두 청년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은 자신만을 믿고 희생하며 힘겹게 살아온 가족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실을 끝내 말하지 못한 것이다.

05 배경·소재 + 서술

이 작품은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 모인 인물들의 삶의 이력과 내면을, 회상과 성찰의 방식을 통해 서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이 내용 전개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인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②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현재와 각 인물들의 과거 회상을 교차하며 서술하고 있다.
 ④ 1970~8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가상의 공간인 사평역 대합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⑤ '춘심(전형성을 지닌 이름)'을 제외하고는 '사내', '청년'과 같이 등장 인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알아두기 작품의 서술상 특징

-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서술한다.
- 회상과 성찰의 구조를 보인다.
- 인물들이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인다.
- 원작 시 「사평역에서」의 시구와 정서, 이미지 등을 인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 인칭 시점의 화자가 나타나는 원작 시와 달리,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06 인물·사건

(라)에서 중년 사내는 허 씨를 대신하여 허 씨의 노모를 찾아갔지만, 노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도 마을을 떠나 소식이 영영 끊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중년 사내는 어머니의 죽음도 모른 채 감방 안에서 죽게 될 허 씨를 생각하며 연민(불쌍하고 가련함)을 느낀다.

오답 풀이 ②, ④ 중년 사내는 허 씨의 노모가 이미 죽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허탈해질 뿐, 허 씨를 원망하거나 허 씨에게 미안해하고 있지 않다.

③, ⑤ 중년 사내는 찾아갈 가족이 없는 허 씨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낄 뿐, 허 씨를 그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다.

07 어휘

〈보기〉를 고려할 때 중년 사내와 허 씨는 모두 돌아갈 고향도 찾아갈 가족도 없는 처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의미가 통하는 한자 성어로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뜻하는 ‘사고무친(四顧無親)’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금의환향(錦衣還鄕)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관포지교(管鮑之交)는 관중과 포숙의 사귄다는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③ 망운지정(望雲之情)은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08 인물·사건

(바)에서 청년은 시국 사건으로 인해 대학에서 제적당한 처지이지만,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가족들에게 차마 퇴학당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서울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집을 나선 청년은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울음을 터뜨릴 뻔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가 청년을 배웅해 주면서 꾸깃꾸깃 때에 전 돈을 손에 쥐어 주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청년이 퇴학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② 청년의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기는 하나, 청년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④ 어머니와 동생들이 동구 밖까지 청년을 배웅해 주었는데, 청년은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떠나는 것을 속상해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과 희생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이다.

⑤ 청년이 과거에 집에 내려와 농사나 짓겠다고 했다가 노발대발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빈 적이 있기는 하나, 청년은 이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03 사평역 ③

본문 074~07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폐쇄 04 내력

실력 문제

05 ④ 06 ⑤ 07 ④

01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서울 여자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평댁을 잡으러 사평에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02 (사)에서 서울 여자는 사평댁을 만나면 머리채를 박박 쥐어뜯어 놓겠다면 자신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사평댁의 병색이 짙은 모습을 보자 안타까움과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사평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서울 여자가 사평댁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감정이다.

03 (자)로 보아, 중년 사내에게 있어서 삶이란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인 벽돌담 같은 것이다. 즉, 오랜 교도소 생활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4 (카)에서 대학생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내력’이란 곧 ‘까닭’을 의미한다. 즉, 대학생은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05 서술

㉠은 인물들의 삶이 고달픔을 짐작하게 하는 탄식의 말이다. 절정 부분에서는 ㉠의 말을 계기로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이 논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사람들은 각자 생각할 뿐,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는다.

③ 사람들이 서로 말꼬리를 잡고 다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할 뿐, 대합실 안의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않는다.

06 인물·사건

(카)의 대학생은 현실의 안위와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신념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고민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중년 사내는 교도소에서의 삶에 대해, 서울 여자는 돈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 대학생은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②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교도소) 같은 것이라고 여길 만큼, 중년 사내의 삶에는 교도소에서의 체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③, ④ 서울 여자는 돈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모습은 손님들에게 ‘또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07 인물·사건 + 배경·소재

(자)에서 ‘특급 열차’는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 가 버리는 대상으로, 중년 사내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특급 열차’는 ‘벽돌담’ 같은 세상으로부터 중년 사내를 벗어나게 해 줄 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중년 사내의 삶을 고려할 때 ‘벽돌담’은 교도소를 빚댄 표현으로,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며 ‘시간마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공간이다.

⑤ (자)에서 중년 사내는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03 사평역 4

본문 076~07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완행열차 04 톱밥

실력 문제

05 ② 06 ② 07 ③

01 사람들이 기다리던 야간 완행열차가 도착했지만 대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열차에 탄 것은 아니다. 미친 여자는 열차에 타지 않고 역장과 함께 역에 남았다.

02 난로의 불빛 속에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본 사람은 청년이다.

03 사람들이 기다리던 막차, 즉 '야간 완행열차'는 두 시간을 연착한 후에 역에 도착했다.

04 역장이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대합실에 남아 있는 미친 여자를 위해 '톱밥'을 더 가져다 난로에 뿌려 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05 배경·소재 + 주제

완행열차만 가끔 서는, 가상의 시골 간이역인 '사평역'에서 사람들은 두 시간이나 연착하는 열차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회상한다. 하지만 현실의 고단한 삶을 잊을 수 있는 완전한 세계는 사평역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사평역은 시골 간이역이므로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외진 공간이며,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⑤ 사평역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잠시 쉬어 가는 공간이자,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다.

알아두기 '사평역'의 의미

사평역 완행열차만 가끔 서는, 가상의 시골 간이역

- 의미**
-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외진 공간
 -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잠시 쉬어 가는 공간
 -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공간
 - 작품 속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간

06 배경·소재

이 작품에서 ㉠ '야간 완행열차'는 인물들이 기다리는 대상으로, 그들을 일상의 삶으로 복귀시켜 주는 소재이다. 인물들은 '완행열차'에 올라타으로써 다시 그들의 삶을 이어 나간다. 그러나 '완행열차'가 그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 '야간 완행열차'는 쉬어야 할 밤에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 역마다 정차하며 간다는 점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 '야간 완행열차'가 출발한 뒤 서술의 초점이 사평역 대합실에 남아 있는 역장과 미친 여자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④ ㉠ '야간 완행열차'는 열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므로, 인물들이 열차에 오르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 갈 것임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작품은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의 이야기이므로, ㉠ '야간 완행열차'가 두 시간 연착하게 설정함으로써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7 인물·사건 + 주제

㉠ '청년'이 난로에 톱밥을 넣는 것을 보고 ㉡ '중년 사내'가 ㉠ '청년'을 따라 난로에 톱밥을 넣는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 '청년'은 난로에 톱밥 한 줌을 넣으며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고 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 '중년 사내' 역시 톱밥 한 줌을 난로에 뿌리며 허 씨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확실하지 않은 얼굴을 떠올리고 있다.

④ ㉠ '미친 여자'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떠난 후 난로 곁에 다가오는 것을 통해 그녀가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외된 존재이며 열차를 타고 복귀할 일상이 없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대합실에 홀로 남은 ㉠ '미친 여자'를 위해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넣으려는 ㉡ '역장'의 모습에서 소외된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알아두기 '눈'과 '난로'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 | | |
|-----------|--|
| 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만적이고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함 • 막차를 연착하게 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함 |
| 난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들이 자신의 과거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회상의 매개물임 •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함 • 대합실 밖의 추위와 대비되어 따뜻한 열기를 제공하는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함 |

+ 독해 체크

본문 078쪽

- ① 연착 ② 난로 ③ 역장 ④ 간이역 ⑤ 사평역
⑥ 소외 ⑦ 완행열차 ⑧ 회상

+ 어휘 체크

본문 079쪽

- 1 (1) 열추 (2) 으레 (3) 뇌리
2 (1) ㉠ (2) ㉡ (3) ㉠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가족사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주제 예술혼과 인간의 본원적 삶에 대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특징 • 중심 소재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 줌
• 갈등의 해소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줌

확인 문제

01 ○ 02 × 03 체면 04 복장단

실력 문제

05 ④ 06 ③ 07 ④

01 '손자와의 이런 자잘고롭한 티격태격이 괜찮아', '신바람이라는 말이 민 노인의 가슴 복판을 쿵 찌르고 달아났다.' 등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또한 '꽤 능글맞은 녀석은 ~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지혜도 갖고 있었다.'에 성규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02 (가)에서 성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갈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03 앞부분 줄거리에서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북을 친 민 노인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한 부분과, (나)에서 민 노인이 '애비는 애비대로 내 북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4 (가)에서 성규는 학교 축제에서 자신의 서클이 봉산 탈춤 발표회를 한다며, 민 노인에게 '복장단'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05 인물·사건

민 노인은 학교 축제의 탈춤 공연에서 복장단을 맡아 달라는 성규의 부탁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신바람이라는 말에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가)와 (나)에 민 노인이 성규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민 노인은 성규와 장난으로 티격태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이다.

② 성규가 민 노인에게 탈춤 공연에서 복장단을 맡아 달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에 민 노인은 '신바람이라는 말이 가슴 복판을 쿵 찌르고 달아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민 노인은 북을 치는 일에 신바람을 느낄 수 있다.

③ 탈춤 공연에서 복장단을 맡아 달라는 성규의 부탁에 민 노인이 "늬 애비가 알면 큰일 난다."라고 한 것이나, 민 노인의 아들이 민 노인의 북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민 노인은 북을 치는 문제로 아들과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민 노인은 아들의 고향 친구들 앞에서 북을 친 일로 아들이 떠진 날 이후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면 외출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6 어휘

①은 문맥상 '감정이나 기색 따위를 생겨나게 하는'이라는 뜻이다. 이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신바람'이 생겨나게 했다는 의미로 쓰인 ③의 '돌우었다'이다.

오답 풀이 ① '입맛을 당기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② '위로 끌어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④ '정도를 더 높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⑤ '말을 괴거나 쌓아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07 인물·사건 + 배경·소재

(나)에서 성규의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며 ㉠ '봉산 탈춤 발표회'의 복장단을 거절하는 민 노인에게 성규는 자신과 비밀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성규가 아버지 몰래 민 노인을 ㉡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을 민 노인과 성규의 아버지를 소통시키기 위한 계획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⑤ <보기>에서 성규는 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던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규가 민 노인에게 ㉠에서 복장단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며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 민 노인에게 북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성규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성규의 아버지는 민 노인이 북을 치는 것을 반대하므로, 성규의 부탁으로 민 노인이 ㉡에서 북을 친 일이 밝혀지면 성규의 아버지와 성규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③ ㉡은 학교 축제의 하나로, 민 노인이 대학생들과 함께 공연하게 되면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화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막걸릿집

06 아들 07 출판

실력 문제

08 ① 09 ① 10 ② 11 ③ 12 ②

01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02 (다)~(라)에서 민 노인은 무색함이나 어색함을 느끼다가도 북을 치며 그러한 감정을 잊고 신명마저 느끼고 있다. 따라서 민 노인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다)에서 성규네 탈춤반 아이들은 민 노인의 북소리에 대해 명인의 경지라고 추켜올리며 높게 평가하였다.

04 (다)에서 민 노인은 연습 후 막걸릿집에서 성규네 탈춤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마음이 외전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고 느꼈다.

05 연습 후 민 노인이 성규네 탈춤반 아이들과 어울린 '막걸릿집'은 전통 세대인 민 노인이 신세대와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06 (라)의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로 보아, 민 노인은 '아들' 내외 몰래 성규네 학교 탈춤 공연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07 (라)에서 '춤판'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자, 민 노인이 북을 치는 일에 몰입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08 서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민 노인을 초점화하여 그의 심리를 세세하게 서술하는 등 민 노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는 민 노인의 처지나 심리에 공감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이 작품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역순행적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에 인물의 외모나 성격 등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 희화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작품에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에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두기 이 작품의 시점과 서술 초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바깥의 서술자

민 노인을 초점화한 서술

- 낮선 장면과 마주쳐 다소 어리벙벙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 북을 두드리는 동안 그런 무색함은 서서히 사라져 갔다.
-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 듣기 싫지가 않았다.

민 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민 노인의 심리에 공감하도록 함

09 인물·사건

(다)에서 아이들이 민 노인의 북소리를 명인의 경지라고 추켜올리기는 하였으나, 민 노인이 아이들의 탈춤 실력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라)에서 민 노인은 탈춤 공연이 시작되자 자신이 맡은 북을 치는 일에 몰입하였다.

③ (다)에서 민 노인은 탈춤반 아이들과 연습하며 처음에는 낯선 장면과 마주쳐 다소 어리벙벙하였지만, 연습을 하면서 그런 무색함은 서서히 사라졌다.

④ (라)에서 민 노인은 탈춤 공연이 시작되자 자신에게 쏠리는 구경꾼들의 시선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⑤ (다)에서 탈춤반 아이들은 민 노인이 며칠 더 연습에 나오겠다고 하자 환영의 박수를 쳤고, 연습 후 막걸릿집에서는 민 노인의 북소리가 명인의 경지라고 추켜올렸다. 이를 통해 탈춤반 아이들은 민 노인이 탈춤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 인물·사건

(라)에서 민 노인은 집을 나서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렘'으로 흔들렸으며, 탈춤 공연 전에는 아이들 춤판에 자신이 낀다는 사실에 대한 '어색함'과 모처럼의 북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적막감'을 느꼈다. 하지만 탈춤 공연이 시작되자 아무 생각 없이 북을 치며 '신명'을 느꼈다.

오답 풀이 ①, ③ (라)에서 민 노인이 체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⑤ (라)에서 민 노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배경·소재

이 작품에서 ㉠ '북'은 민 노인의 분신이자 예술혼을 상징하는 소재이다(ㄴ). 민 노인이 북을 통해 탈춤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보아, '북'은 전통 세대와 신세대의 소통을 이끄는 매개체(ㄷ)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북'이 성규의 가족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ㄴ. '북'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작품 전체에서 성규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인 민 노인이 평생을 바친 '북'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성규는 '북'에 긍정적인 입장이므로, '북'은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2 어휘

㉠은 탈춤 공연 중에 북을 치는 일에 몰입하여 북소리와 하나가 된 상태로, 이와 의미가 통하는 한자 성어는 '정신이 한 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를 뜻하는 무아지경(無我之境)이다.

오답 풀이 ① 고립무원(孤立無援)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뜻한다.

③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④ 불협화음(不協和音)은 '어떤 집단 내의 사람들 사이가 원만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음풍농월(吟風弄月)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을 뜻한다.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맞 06 화해
07 갈등

실력 문제

08 ① 09 ⑤ 10 ② 11 ④ 12 ③

- 01 (마)에서 며느리가 민 노인에게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라고 말한 데서 민 노인이 성규의 탈춤 공연에서 북을 친 일을 두고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마)에서 민 노인이 자신이 성규네 학교에서 북을 친 일이 아들 내외의 체면을 깎았냐고 묻자 며느리는 “아시니 다행이네요.”라고 대답하였다.
- 03 (바)에서 성규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였다. 단 성규는 아버지의 논리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 04 (바)에서는 성규의 아버지와 성규가 민 노인에게 대한 입장과 태도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 민 노인이 이들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5 (마)에서 민 노인은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똥’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을 느끼는데, 이는 민 노인이 탈춤 공연에서 북을 치고 난 후에 느낀 감정이다.
- 06 (바)에서 성규의 아버지는 성규에게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 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라고 말하며 못마땅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 07 (바)에서 성규는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꽤적인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였다.

08 서술

(마)에서는 민 노인과 며느리의 대화를 통해, (바)에서는 성규의 아버지와 성규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마)~(바)에는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마)~(바)에서는 장면이 빈번하게 바뀌고 있지 않다.

④ (마)~(바)에는 배경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마)~(바)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09 인물·사건

㉠에서 민 노인의 호숫함이 오래 가지 않은 이유는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성규네 학교에서 북을 친 일로 자신을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민 노인은 성규를 찾지 않았으며, 다 저녁때가 되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규를 찾은 사람은 며느리이다.

② 며느리의 외출은 민 노인의 호숫함이 오래 가지 않은 것과 관련없다.

③ 민 노인은 전날 북을 친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을 친 날의 노곤함은 민 노인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였다.

④ 민 노인이 아이들 노는 데 끼여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며느리이다.

10 서술

㉠에는 본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의미를 강화하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입과의 이별을 매우 슬퍼하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드러내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④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과장법이 사용되었다.

⑤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11 인물·사건

(바)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라는 성규의 말로 보아, ㉠은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바)에서 성규의 아버지가 성규나 민 노인을 챙기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바)에서 성규가 성규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챙겨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어휘

문맥으로 보아 ㉠의 사전적 의미는 ‘지극한 정성’이다.

오답 풀이 ① ㉠ ‘면전(面前)’은 ‘보고 있는 앞’을 의미한다.

② ㉠ ‘詰問(詰問)’은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을 의미한다.

④ ㉠ ‘제스처(gesture)’는 ‘말의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하는 몸짓이나 손짓’을 의미한다.

⑤ ㉠ ‘훈계(訓戒)’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북 06 데모
07 역마살

실력 문제

08 ③ 09 ③ 10 ④ 11 ②

01 (아)에는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간 새로운 사건이 제시되었을 뿐, 아버지와 성규의 갈등이 해소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사)에서 민 노인의 아들은 방에 있다가 응접실로 나온 민 노인 쪽엔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쭉 지른다. 이는 민 노인의 아들이 민 노인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자 한 것이지, 민 노인이 아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03 (사)에서 성규의 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라고 말한 것은, 민 노인의 삶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자)에서 수정이는 북소리에 푹 빠져 있는 오빠와 달리 북소리가 ‘잡음’으로만 들린다고 한 것으로 보아, 민 노인이 치는 북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5 성규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06 (아)에서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심란한 모습을 보인다.

07 민 노인은 성규가 붙들려 간 게 자신이나 북과도 관련이 있다며 자신의 ‘역마살’과 성규의 데모가 닮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08 인물·사건

(아)에서 민 노인은 며느리가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사뭇 비뚤어져 있다고 느낀다. 이는 며느리가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간 것을 자기 탓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사)에서 성규는 민 노인의 예술혼을 이해하고 있지만, 민 노인의 아들은 민 노인의 예술혼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

② (사)에서 민 노인의 아들과 성규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④ (아)에서 민 노인은 데모하다 잡혀간 성규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성규가 현실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⑤ (자)에서 민 노인은 수정이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역마살과 성규의 데모가 닮았다고 생각하며 북을 친다.

09 인물·사건 + 서술

㉔에서 성규의 아버지는 민 노인 쪽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이는 민 노인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이지, 민 노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문 것으로 보아, ㉔은 민 노인의 삶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㉔에서 민 노인이 응접실로 나온 이유는 자기 때문에 성규가 궁지에 몰려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으므로, 성규를 궁지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에서 송 여사가 의미 불명의 소리를 지르더니 펄쩍펄쩍 뛸 것으로 보아,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⑤ ㉔에서 송 여사가 민 노인과 수정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아,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간 일로 예민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배경·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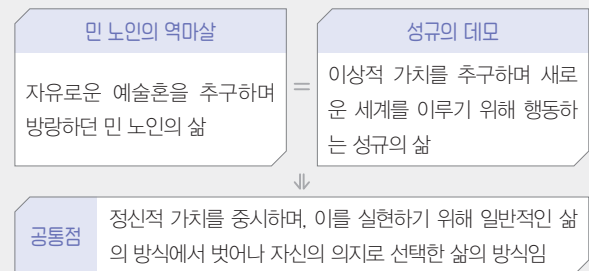
(사)에서 민규가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㉔는 자유로운 예술혼을 추구하며 살아온 민 노인의 삶을 보여 준다. 따라서 ㉔는 ㉒와 마찬가지로 주체적인 삶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㉔는 자유로운 예술혼을 추구하며 방랑하던 민 노인의 삶을 상징한다.

②, ③ ㉔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향한 행위로, 진보와 화합을 중시하며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성규의 삶을 상징한다.

⑤ ㉔와 ㉒에 담긴 삶의 태도는 각각 성규의 아버지와 갈등하게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역마살’과 ‘데모’의 공통점



11 주제

이 작품에서 민 노인과 성규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도 성규로 대표되는 신세대는 민 노인으로 대표되는 전통 세대를 이해하고 연대하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민대찬과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규가 갈등하고 있다. 이는 곧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대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이 작품에서 가족 중 민 노인의 예술혼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규가 유일하며, 성규는 민 노인이 다시 북을 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민 노인과 성규의 연대와 소통은 전통 세대와 신세대의 화합을 의미하며, 세대 간 갈등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작품에서 예술혼을 추구하는 민 노인과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민대찬이 갈등하고 있다. 이는 곧 정신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의 대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88쪽

- ① 북 ② 데모 ③ 갈등 ④ 이해 ⑤ 예술혼
⑥ 민 노인 ⑦ 화합

+ 어휘 체크

본문 089쪽

- 1 (1) ㉔ (2) ㉔ (3) ㉔
2 <가로> ① 국외자 ④ 부아 ⑤ 경지
<세로> ② 자청 ③ 치부 ⑥ 지성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성격** 향토적, 해학적, 풍자적**주제** ① 황만근의 덕성과 이타적인 삶에 대한 예찬
②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과 각박한
인심에 대한 비판**특징** • ‘전(傳)’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됨
• 1990년대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함
•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남**확인 문제**

01 ○ 02 × 03 × 04 경운기 05 바보

실력 문제

06 ⑤ 07 ⑤ 08 ④ 09 ④

01 이 작품은 199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등장인물의 사투리와 비속어 등을 통해 향토적이고 해학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02 이 작품에서 민 씨는 주인공인 황만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함으로써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인물이다.

03 이장은 황만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로, 황만근이 실종된 상황에서 염려하기보다 소여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다. 따라서 이장이 평소 황만근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4 민 씨는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시위에 참여한 황만근만 돌아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05 이장이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소 황만근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서술

시간상 황만근이 궤기 대회에 갔다가 사라진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인데, 황만근이 실종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황만근의 실종되기까지의 행적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 (다)에서는 서술보다 민 씨와 이장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황만근의 실종이라는 사건의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알아두기 역순행적 구성의 효과**역순행적 구성**

황만근이 사라진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황만근이 실종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함

**효과**

- 독자가 이야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흥미를 유발함
- 황만근의 삶을 추적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
-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만근의 죽음을 극적으로 제시함

07 인물·사건

도시에서 귀농한 민 씨는 이장과 달리 황만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으며, 황만근의 실종에 관심을 갖고 이장에게 그 경위를 묻고 있다. 하지만 민 씨가 궤기 대회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장과 대화에서 민 씨가 황만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장의 말에서 민 씨가 도시에서 살다가 망하여 귀농한 외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③, ④ 민 씨는 황만근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듯 이장에게 묻고,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하며 민 씨를 모욕한다. 이 과정에서 민 씨와 이장의 갈등이 점점 고조된다.

08 배경·소재

이장과 민 씨의 대화를 통해 황만근은 농가 부채 탕감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궤기 대회는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했던 당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는 소재로, 황만근은 이 궤기 대회에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참석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궤기 대회는 황만근의 우직한 성품을 드러내는 동시에 황만근의 실종을 불러일으킨 계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군청은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리기로 한 장소이다.

② 트럭은 이장이 궤기 대회의 방침을 어기고 대회에 참여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이다.

③ 경운기는 궤기 대회에 방침대로 참여한 황만근의 우직한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황만근의 실종과 관련된 소재이다. 그러나 당시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⑤ 마을 회관은 이 소설의 배경이자, 발단 부분에서 황만근의 실종을 알리는 장소이다.

09 인물·사건 + 서술

㉔에서 이장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궤기 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돌아오지 않은 황만근의 안위보다 소여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이장의 모습에서 이장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 ② 이장은 자신은 이장의 직무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쫓겨 대회를 치를 지키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③ 진짜로 경운기를 타고 가면 군 대회에는 늦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것이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방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민 씨는 원칙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약삭빠르게 행동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이장의 모순된 행동을 추궁하고 있다.

05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2

본문 092~09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부재 05 공평무사
06 공치사

실력 문제

07 ④ 08 ③ 09 ②

- 01 (라)와 (바)에서 황만근은 마을의 온갖 굶은이들을 대가 없이 성실하게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에게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비는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성품을 부각하고 있다.
- 02 (마)~(바)에서는 황만근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모습이 드러날 뿐,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묘사하여 해학성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다.
- 03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이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든다는 것을 통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다.
- 04 (라)에서 황영석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펴내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아이들은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던 중 시비를 물으러 가려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 05 (라)에서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라고 하였다.
- 06 (바)에서 황만근이 동네의 일을 한 경우에는 대가가 없었고,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에는 반값을 받았으며, 경운기를 이용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제값을 받았는데 이때는 '공치사'가 따랐다고 하였다.
- 07 서술
(라)~(바)에서는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됃됨이를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보여 줄 뿐, 중심인물인 황만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등장인물의 말이 구어체의 사투리로 제시되어 현장감과 향토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 ② 황만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황만근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에서는 이타적인 황만근과 달리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그려 냄으로써 황만근의 덕성을 예찬함과 동시에 각박한 인심을 비판하고 있다.

08 인물·사건

(라)에서 황만근은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노인들에게는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며 그들을 알게 모르게 보살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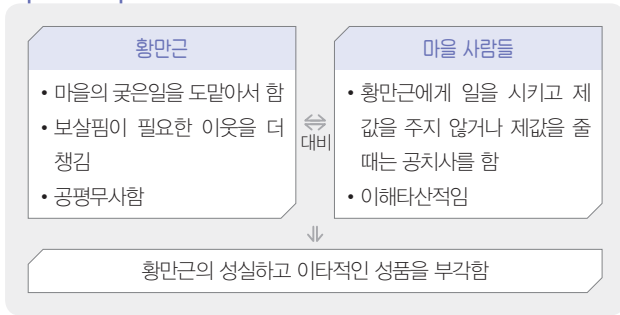
-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을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그리워하며 '황만근'을 부른 것은 아니다.
- ② (라)에서 황만근은 남들이 꺼리는 분노를 펴내는 일을 군말 없이 하면서도 공평하게 분노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을 뿐, 황영석이 공평하게 분노를 나누는 황만근에게 불만을 표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마)에서 황만근은 어머니와 아들을 자극정성으로 챙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상 없이 밥을 먹었다고 하였다.
- ⑤ (마)에서 황만근이 만든 음식을 맛본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고 하였다. "희한할세, 바보가."라고 한 것은 바보가 만들었음에도 음식이 맛있다는 감탄의 표현이다.

09 인물·사건 + 주제

황만근이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펴내는 일과 같이 마을의 굶은이를 군말 없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했던 것은 그가 성실하고 낙천적인 성격임을 보여 준다.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면이 그가 평균치에 못 미치는 인간임을 보여 준다 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바)에서 황만근이 염습과 산역같이 다들 기피하는 마을의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황만근의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다.
- ③ (라)에서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펴냈을 때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 충분히 익힌 후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데 반해 황영석은 분노를 자기가 폄다는 이유로 자기 밭에 가져다 뿌렸다고 하였다. 이처럼 황영석이 황만근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에서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바)에서 황재석은 마을 일에 대한 황만근의 수고에 고마워하지 않고 그를 '반근'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자신들이 일을 시켜 주는 것에 고마워하라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황재석이 황만근을 하대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라)에서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여씨 노인은 거름이 오지 않자 자신에게 거름을 더 가져다주었던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시비를 따질 일이 생겨 황만근에게 물어보려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는 데서 모자란 듯한 황만근이 정작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알아두기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대비



05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3

본문 094~09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빛 05 소

실력 문제

06 ④ 07 ④ 08 ②

- 01** 이 작품은 농촌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농촌 공동체의 인정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가 부채로 어려운 농촌 현실과 농촌의 각박한 인심을 드러내고 있다.
- 02** 이 작품은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쫓갓기 대회'가 열릴 정도로 부채에 허덕이던 당시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03** 황만근은 이장에게서 농민 쫓갓기 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아 간 것일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기 위해 농민 쫓갓기 대회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것은 아니다.
- 04** (자)에서 황만근은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라고 말하며 ‘빚’으로 집집마다 기계를 들여놓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05** (자)에서 옛날에는 ‘소’를 다른 집에 빌려주고 서로 도와 가며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 06** 인물·사건

(사)에 쫓갓기 대회가 열리기 전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부채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때 마을 사람끼리 대립하지는 않았다.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라고 말장난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자)에서 황만근은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지만 좋은 열매 뻗으마 그마이가?”라고 하였다.

② (야)에서 이장은 황만근에게 농민 쫓갓기 대회에 जाने같이 독부러지게 농사짓는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며 경운기를 끌고 가는 일에 황만근을 앞세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자)에서 황만근은 자신이 빚을 지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로 봐서 빚을 준다고도, 보증을 서라고도 하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자)에서 황만근이 한 말들을 통해 황만근은 농사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야)에서 민 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쫓갓기 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07 서술

(자)는 민 씨가 전날 밤 들은 황만근의 말을 민 씨의 입장에서 제시한 부분이다. 즉 당시 농가의 부채 문제와 기계화 영농, 수매 정책 등 농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황만근이 한 말을 제시하고, 민 씨가 이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을 괄호 안에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인공 황만근의 말을 직접 인용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② 작중 인물인 민 씨의 시각에서 주인공 황만근이 한 말을 제시하고 있다.

③ 주인공 황만근의 말에 작중 인물 민 씨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데, 민 씨는 황만근의 시각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⑤ 황만근의 말을 통해 당시 농촌 사회의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에는 기계화 영농 정책에 따라 부채로 마련한 기계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기계화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은 융자금으로 과도하게 시설에 투자한 사례들이다. ㉠ 앞에서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빚이 또 빚을 부르는 악순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서는 과거와 달리 서로 도와 가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의 현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개인주의의 팽배로 공동체 의식이 상실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④ ㉡에서는 융자를 쉽게 제공하여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⑤ ㉡ 앞에서 황만근은 바보라는 이유로 융자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빚을 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자기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으면서 망하지 않고 살 것이라는 ㉡에 나타난 황만근의 말은, 부채 없이 성실하게 노동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알아두기 '황만근'의 말에 나타난 당시의 농가 부채 현실

어수룩한 줄만 알았던 황만근의 말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농촌 사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황만근의 말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
당시의 농가 부채 현실
• 기계화 영농 정책이 농가 부채 문제를 심화시킴 • 부채가 결국 쌀값을 인상시키는데, 실제로는 수매가가 낮게 책정되어 빚이 늘어남 • 정부의 각종 자금 지원이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유골 05 경운기
06 선생

실력 문제

07 ④ 08 ⑤ 09 ⑤ 10 ③

01 ‘전(傳)’은 한문 문학 양식의 글로, ‘인물의 행적 - 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이 작품은 황만근의 행적이 먼저 제시된 후, 결말에서 황만근에 대한 민 씨의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02 이 작품은 결말에서 인물 간의 화해 장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결말 부분에서는 묘비명의 양식을 차용해 황만근의 일생을 총정리하며 평가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03 (타)에서는 켄기 대회에 갔던 황만근의 실종된 이유와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민 씨의 시각에서 추측한 내용일 뿐 황만근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차)에서 황만근의 아들이 ‘한 향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고 한 것을 통해 그가 실종 후 일주일 만에 ‘유골’이 되어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05 (타)에서 황만근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운기’를 끌고 먼 소재지로 갔을 때 경운기를 끌고 온 사람이 없었다고 한 것을 통해 황만근만이 방침대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06 민 씨는 황만근을 ‘황 선생’이라고 높여 이르며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07 인물·사건

(카)에서 황만근은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공을 적절히 내세울 줄 알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카)에서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카)에서 황만근은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고,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카)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파)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08 인물·사건

황만근이 모는 경운기는 빠르게 달리는 차들과 여러 번 부딪힐 뻔했지만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경운기가 길옆의 논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황만근은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히고, 흐리고 추운 날씨에 비가 오는 것을 피할 수도 없었지만, 끝까지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군청으로 갔다.

② 황만근이 켄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운기를 타고 먼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끌고 온 사람은 황만근뿐이었기에, 그는 홀로 경운기를 끌고 군청까지 갔다.

③ 황만근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고 하였다.

④ 황만근은 군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길옆의 논으로 떨어졌고, 경운기 옆에서 술을 마시며 밤을 새우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09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서술

㉔은 황만근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기리는 글을 남긴 민 씨가 귀농했던 새터 말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 아들이 향아리에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는 것은 황만근의 죽음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②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부채를 갚기 어렵기에 ㉔과 같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한 것이다.

③ ㉔은 더위를 식혀 주는 나무 그늘에 황만근의 덕을 비유한 것이다.

④ ㉔에서 ‘이 어찌 하늘이 ~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사람이 아니라’와 같이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황만근의 뛰어난 인품을 강조하고 있다.

10 인물·사건 + 서술

묘비명의 형식을 빌려 황만근에 대한 민 씨의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황만근의 행적과 면모를 객관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묘비명은 묘비에 죽은 사람의 이름과 경력 등을 새긴 글로, 묘비명 형식으로 황만근의 삶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다.

②, ⑤ (카)에서 황만근이 살아온 삶의 내력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④ (타)에서 황만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밝혀 그의 실종 및 죽음에 이른 과정 등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98쪽

① 이장 ② 부채 ③ 유골 ④ 반근 ⑤ 어머니
⑥ 관찰 ⑦ 흥미 ⑧ 역순행적 ⑨ 농촌

+ 어휘 체크

본문 099쪽

1 (1) 탕감 (2) 종식 (3) 상환
2 <가로> ① 공치사 ③ 대처
<세로> ① 공평무사 ② 사설 ④ 자처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 명혼(冥婚) 소설

성격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

-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죽은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전기적 요소가 두드러짐

확인 문제

01 ○ 02 × 03 매자 04 장원

실력 문제

05 ⑤ 06 ③ 07 ③

01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기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02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이생과 최 여인은 이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최 여인이 상심 때문에 병이 나자 최 여인의 아버지가 이생의 집에 매자를 보내 수차례 청혼한 끝에 이생과 최 여인의 혼인이 성사되었다.

03 (나)를 통해 최 여인과 이생의 혼담은 ‘매자(媒子)’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04 (나)에서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이 훗날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배필을 서둘러 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다.

05 **서술**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생이 ‘송도’의 ‘국학’에 다닌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대화에서 최 여인의 적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고, (나)의 대화에서 최 여인의 아버지의 넉넉한 인품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매자가 최 여인의 아버지와 이생의 아버지 사이에서 말을 전하며 혼인을 주선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최 여인이 부모에게, (나)에서는 최 여인의 아버지와 이생의 아버지가 상대방에게 격조 있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④ 이생의 아버지로 인해 최 여인과 이생이 이별을 맞이하였지만, 세 번에 걸친 청혼 끝에 최 여인과 이생의 혼인이 성사되며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06 **인물·사건 + 배경·소재**

최 여인은 남녀가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며 이생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최 여인은 당대의 질서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그에 맞서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최 여인이 “시경”과 “역경”의 구절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데서 그녀가 학식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최 여인이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옆 사람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데서 당시 사회는 절개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최 여인은 부모에게 자신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경우 죽음만이 있다고 하며 이생과의 사랑을 허락해 줄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⑤ 최 여인의 말을 듣고 바로 딸을 달래며 이생과의 혼인을 허락하는 데서 최 여인의 부모가 딸을 금지옥엽처럼 아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인물·사건 + 서술**

⑥와 ④는 최 여인의 아버지가 이생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전언으로, 둘 다 자기 딸인 최 여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⑥와 ④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에서 이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근거로 들어 청혼을 거절하고 있을 뿐, 최 여인의 아버지에게 원하는 바를 부탁하고 있지 않다.

② ⑥에서 최 여인의 아버지는 이생의 능력을 높이 사며 자신의 딸 또한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생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④ ③에서 이생의 아버지는 권세 있는 최 씨 가문에서 빈한한 자신의 가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혼인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에 ④에서 최 여인의 아버지는 이생 집안의 사정에 개의치 않고 자기 집에서 모든 혼인 준비를 하겠다며 이생의 아버지를 재차 설득하고 있다.

⑤ ③~④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결과 ⑤의 혼인 성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⑥가 원인이 되어 ③~④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06 이생규장전 ②

본문 102~10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흥건적 05 환신

실력 문제

06 ② 07 ① 08 ③ 09 ⑤

01 이 작품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해 환신으로 나타난 최 여인과, 그녀가 죽은 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이생의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02 최 여인은 살아서는 절개를 빼앗으려는 도적에게 맞서고, 죽어서도 환신으로 나타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03 (라)에서 이생은 최 여인이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지만 최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최 여인의 환신을 받기며 말을 걸고 있다.

04 이 작품은 실제 신축년에 일어난 '홍건적'의 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여 이생과 이별하게 된다.

알아두기 「이생규장전」의 구성

이 작품은 '홍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 (현실적)

- 이생과 최 여인의 만남과 사랑
- 이생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이별
- 마침내 부모의 허락을 얻어 이론 혼인
-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최 여인의 죽음



후반부 (비현실적)

- 이생과 죽은 최 여인의 재회
- 영원한 이별과 이생의 죽음

05 죽은 최 여인의 '환신' 즉,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비현실적인 사건에 해당하며, 이는 고전 소설의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06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서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홍건적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최 여인이 죽음을 맞는 사건이 전개되어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마)의 최 여인의 말에서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서로 사랑하며 지냈던 행복한 시절, 최 여인이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 일, 이승에 되돌아온 이유 등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마)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라는 표현에 작품의 제목 '이생규장전'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⑤ 이 작품은 귀신과 사람의 사랑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황 즉, 전기적 요소를 사용해 이야기의 흥미를 더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전기 소설의 특징

전기 소설의 특징

-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한 일을 다룬 소설을 말함
- 비현실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거나, 현실 속 인물들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험을 함



「이생규장전」의 전기적 요소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이승에 되돌아와 이생과 함께 부부의 연을 이어 감

07 인물·사건 + 어휘

㉠에서 이생은 최 여인과 즐겁게 지냈던 날들을 돌아보며 한바탕 꿈만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정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로 이르는 말인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을 뜻한다.

③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 것이라는 말이다.

④ '결초보은(結草報恩)'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은 뒤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진퇴양난(進退兩難)'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08 인물·사건

최 여인은 자신의 사랑과 정조를 지키기 위해 도적에게 맞서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에서 몸뚱이가 찢김을 당했다는 것은 이런 처참한 죽음을 의미할 뿐, 최 여인의 자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이생과 함께 백 년 동안 사이좋게 살아가고 싶었던 최 여인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②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의 횡액에 해당하므로, 인물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의 '짜 잃은 새'는 최 여인 자신을 빗댄 표현이므로, 이를 통해 사랑을 잃은 최 여인의 슬픔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최 여인은 홍건적에게 정조를 잃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생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해 한이 맺혔음을 토로하고 있다.

09 인물·사건 + 배경·소재

최 여인과 이생이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에 빠진 것은 부모님이 정해 준 사람과 결혼하는 당시의 유교 문화 즉, 가부장적 질서를 벗어나 자유연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홍건적의 난으로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생과 재결합하는 것에서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도교 사상이 나타난다.

②, ④ 여자가 어릴 때부터 규중의 법도를 익히는 것이나 정절을 중시하는 것은 당시의 유교적 관습과 사상을 보여 준다.

③ '삼세'는 불교의 '전세, 현세, 내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삼세의 인연을 언급한 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보여 준다.

06 이생규장전 ③

본문 104~10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가산 05 이승
06 가약

실력 문제

07 ③ 08 ① 09 ⑤ 10 ⑤

01 이 작품에서는 이생과 최 여인에게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닥치는데, 어떤 잘못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권선징악적 주제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02 최 여인과 이생이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면은 효(孝)를 중요시하던 당시의 유교 문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최 여인은 저승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 이생에게 이별을 알리며 목메어 울고 있을 뿐, 이생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4 (바)에서 최 여인은 이생과 재회하여 나누던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가산'을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 두었다고 말하였다.

05 (아)에서 최 여인은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06 최 여인이 말한 세 번의 '가약' 중 첫 번째는 이생과 최 여인이 담장을 넘어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약속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생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 만남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07 인물·사건 '두문불출(杜門不出)'은 집에서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생은 출세가 좌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회한 최 여인의 환신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사는 삶을 택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바)에서 이생은 죽은 최 여인의 환신에게 기쁨과 고마움을 드러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② (사)에서 이생은 두문불출하며 늘 최 여인과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아)에서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최 여인이 이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몇 해 동안 함께 세월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④ (아)에서 최 여인은 저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 앞에서 다시 이별해야 함을 슬퍼하고 있다.
 ⑤ (아)에서 최 여인이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는데 다시 슬픈 이별이 찾아왔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알아두기 등장인물의 특성

이생	• 시문에 능하고 수려한 외모를 지닌 선비 • 사별한 최 여인과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임
최 여인	• 이생과의 신의와 절개를 지키는 양가의 규수 • 이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임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서술 이생이 부모의 유골을 거두어 합장하고 제사를 지낸 사건은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생과 부부의 연을 이어 가는 부분은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므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③, ④, ⑤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면 작품 전체에 신비한 분위기를 줄 수 있고, 인물이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극적으로 드러내어 부각할 수 있다.

09 인물·사건 최 여인은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기에 천제가 자신을 환신시킨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최 여인이 전생의 죄악을 갚기 위해 이승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③ [A]는 '슬픈 이별이 닥쳐왔'다는 최 여인의 말에 이생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묻은 것에 대한 대답으로,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과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최 여인은 '천제께서 저와 남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기에 자신을 환신시켜 이생을 만나 시름을 풀게 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최 여인이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통해 이승에서 최 여인과 이생은 이별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10 인물·사건 (사)에서 최 여인은 이생과 즐겁게 세월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삼신산 같은 수명으로 백세 영화를 누리면서 원앙처럼 한평생을 보내겠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뿔버들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와 떨어져 있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② 기울어 가는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조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③ 임과 이별하고 오면서 느낀 슬픔을 냇물에 비유하여 표현한 시조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임과의 이별로 인한 비통함을 노래한 시가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06 이생규장전 4

본문 106~10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비극적
 06 거울 07 원앙, 무산 선녀

실력 문제

08 ⑤ 09 ② 10 ① 11 ④

01 이 작품에서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돌아왔다가 저승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사후 세계를 부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02 이생은 최 여인의 부탁으로 그녀의 유골을 수습하는 것이지 그녀와의 재회를 위해 유골을 수습한 것은 아니다.

03 (차)에서 이생은 이별을 알리는 최 여인에게 함께 황천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최 여인은 이생은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며 홀로 저승으로 돌아갔다. (가)에서 그 후 이생은 최 여인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04 (가)의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에서 사람들이 이생과 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받았음을 알 수 있다.

05 이 작품에서 이생과 최 여인은 생사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영원히 이별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06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에서는 이생과 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최 여인의 슬픔이 나타난다.

07 짝을 잃은 '원앙'은 이생과 최 여인을 상징하는 시어로, 최 여인의 처지를 대변한다. 반면에 임의 곁에 머무르는 '무산 선녀'는 이생의 곁을 떠나야 하는 최 여인의 처지와 대조된다.

08 주제

죽은 최 여인의 환신은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실려 있으니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라진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최 여인의 말에서 이승에서의 시간이 다하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저승으로 가려면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② 죽은 최 여인의 환신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죽음 이후 공장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사라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최 여인의 말에서 죽으면 결국 저승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이 작품에 사람이 살아온 삶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배경지식 + 「이생규장전」이 실린 「금오신화」

조선 전기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집으로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재자가인적(才子佳人的) 인물이고, 한문 문어체로 사물을 극히 미화시켜 표현했으며, 초현실적인 요소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전기 소설(傳奇小說)의 일반적인 성격에 해당한다. 또한 인간성을 긍정한 점, 현실 속에서 제도나 인습, 인간의 운명 등과 대결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점도 특징적이다.

09 인물·사건 + 서술

(자)는 이별의 상황과 그로 인한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차)에서 노래를 부르던 최 여인은 눈물에 목이 메고, 이생 또한 슬픔을 견잡지 못했다고 하였다. 즉 (자)의 노래는 인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 풀이 ①, ⑤ (자)의 노래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별을 앞둔 최 여인의 슬픔을 절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④ 1연에서는 앞서 일어났던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 주며, 2연에서는 최 여인과 이생이 이별할 것임을 암시한다.

10 인물·사건 + 어휘

㉠에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인 '흥진비래(興盡悲來)'가, ㉡에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인 '회자정리(會者定離)'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므로, 이생과 최 여인의 행복이 파국을 맞이하는 ㉠에 적절하지 않다. '환골탈태(換骨奪胎)'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을 이르는 말이므로,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에 적절하지 않다.

③ '회자정리(會者定離)'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이므로, 이생과 최 여인의 행복이 파국을 맞이하는 ㉠에 적절하다. 하지만 '일편단심(一片丹心)'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일편단심(一片丹心)'은 이생과 최 여인의 행복이 파국을 맞이하는 ㉠에 적절하지 않다. '환골탈태(換骨奪胎)'는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에 적절하지 않다.

⑤ '흥진비래(興盡悲來)'는 이생과 최 여인의 행복이 파국을 맞이하는 ㉠에 적절하다. 하지만, '설상가상(雪上加霜)'은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에 적절하지 않다.

11 인물·사건

㉠에서 최 여인은 이생에게 부모의 장례가 아니라 자신의 장례를 지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생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 준 최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이생은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③ 최 여인은 저승의 법을 어기면 이생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이승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⑤ 이생이 아내가 떠난 후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에서 최 여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음을 알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108쪽

- ① 흥건적 ② 환신 ③ 재회 ④ 비극적 ⑤ 저승
- ⑥ 비현실적 ⑦ 정서

+ 어휘 체크

본문 109쪽

- 1 <가로> ① 황천 ④ 가약
<세로> ② 천성 ③ 양가
- 2 시비 - 비유 - 유혼 - 혼백 - 백년해로 - 노복

07

구문동 1 _ 김만중

갈래 국문 소설, 몽자류 소설, 염정 소설

성격 불교적, 전기적

주제 인생무상의 깨달음과 불법 귀의

특징

-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지님
-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인 전기적(傳奇的)인 요소가 나타남
-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나타남

확인 문제

01 ○ 02 × 03 적막 04 죄

실력 문제

05 ⑤ 06 ① 07 ④ 08 ③

01 (라)에서 성진이 대사에게 변명하며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님을 좇아 머리를 깎으니’라고 말한 것에서 성진이 십이 세에 출가했음을 알 수 있다.

02 성진은 용궁에서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한 번 만났을 뿐, 스승을 속이고 팔선녀와 여러 번 만난 것은 아니다.

03 (가)에서 성진은 팔선녀를 만난 후 부처의 법문을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이며,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성진이 불교에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다)에서 대사는 성진의 ‘죄’로 술을 취한 것, 여자를 만나 희롱한 것, 미색을 권련하여 세상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게 여긴 것을 지적하고 있다.

05 **서술**
(다)와 (라)에서 성진의 죄를 물으며 꾸짖는 대사(육관 대사)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다가 스승의 지적에 변명하는 성진의 갈등이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교차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할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제시된 장면에서 서술자가 직접 인물에 대해 논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팔선녀’, ‘용궁’ 등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난다.

④ 성진이나 육관 대사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6 **인물·사건**
성진은 ㉠ ‘여덟 선녀’를 본 뒤 세속적 욕망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팔선녀가 성진에게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부

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② 성진은 세속적 욕망으로 번뇌하다가 출가한 뜻을 되새기며 구차한 마음을 먹은 것을 뉘우치고 있을 뿐, 출가 전의 삶을 추억하고 있지는 않다.

③ 성진은 자신을 꾸짖는 육관 대사 앞에서 연화도량이 곧 자신의 집인데 어디로 가라 하시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 따라서 성진이 연화도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볼 수 없다.

④ 대사는 성진이 지은 죄를 꾸짖고 있으며 용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 대사는 동자를 보내 성진을 불러오게 하였다.

알아두기 ‘팔선녀’의 역할

팔선녀	남악 위 부인을 모시는 여덟 선녀
성진	• 용궁에서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 수작을 부림 • 팔선녀를 만난 후 세속적 욕망으로 불교에 회의를 느낌
육관 대사	성진의 죄를 지적하고 질책함

팔선녀는 성진으로 하여금 세속적 욕망을 갖게 하여 육관 대사에게 질책당하고, 속세로 추방되어 양소유로 환생하게 함

07 인물·사건

성진은 섬돌에 꿇은 뒤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에서는 대사가 묻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 앞에서 성진은 팔선녀를 만난 뒤 세속적 욕망으로 불교에 회의를 느꼈고, 생각을 이리저리하고 뒤적이다 ‘문득 눈앞에 팔선녀를 떠올리기도 한다. 따라서 ㉢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난 후 잡생각에 빠져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세속적 욕망에 빠졌던 마음을 뉘우친 성진은 (다)에서 향로에 불을 피우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염주를 고르고 있다. 따라서 ㉠은 잠시 세속적 욕망에 빠졌던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육관 대사는 깊은 밤에 성진을 부르고 모든 제자를 다 모은 뒤 등축을 낮같이 켜 채 성진의 잘못을 큰소리로 꾸짖는다. 따라서 ㉢는 성진의 잘못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큰일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성진은 육관 대사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꾸짖자 머리를 땅에 조아린 채 울며 변명한다. 즉 ㉢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사의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주제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는 성진이 불교에 회의를 품으며 한 생각이므로, 유교적 이상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인식과 거리가 멀다. <보기>에서도 인간의 세속적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은 불교적 관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결에 조회’하는 삶은 개인의 공로, 명예, 출세를 중시하는 유교적功名주의에 따른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②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은 불교적 삶의 모습으로,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를 따르는 삶과 대조된다.
- ④ 대사는 부처 공부에 필요한 세 가지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는 불가의 적막함에 해당한다.
- ⑤ '용궁'이라는 배경과 '팔선녀'는 도교의 신선 사상을 반영한 작품의 상상적 요소로, 이를 바탕으로 성진이 팔선녀를 만났다는 사건을 설정하고 있다.

07 국문독 2

본문 112~11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인생 04 유도

실력 문제

05 ⑤ 06 ③ 07 ③ 08 ⑤

- 01 양 승상은 진시황, 한 무제, 현종 황제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쓸쓸한 흔적만 남았으며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 02 양 승상은 여덟 남자에게 불교에 귀의하기로 한 결심을 전하고 있을 뿐, 그들에게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 03 '진시황의 아방궁, 한 무제의 무릉, 현종 황제의 화청궁, 승상의 부귀 풍류, 여러 남자의 욕용화태'는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04 양 승상은 천하에 유도와 선도와 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유도'와 선도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05 인물·사건

양 승상은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결국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진시황, 한 무제, 현종 황제의 삶을 통해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양 승상은 공을 이미 이루고 부귀가 극하여 만인이 부러워하는 삶을 이루었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부귀영화에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양 승상은 여러 남자들과 반평생을 함께 살았으나, 불교 귀의를 위해 남자들과 이별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 ③ 양 승상은 불교에 귀의하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여러 남자에게 전하고 있으며, 남자들은 그 결심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④ (마)에서 두 명의 부인은 양 승상에게 통소 소리가 구슬픈 이유를 묻고 있는데, 이는 남자들이 양 승상의 결심을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06 인물·사건

유교와 도교의 한계를 느낀 양 승상은 자신이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꿈을 자주 꾸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이 불가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불도에 귀의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초부와 목동의 탄식은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낼 뿐, 불가와의 인연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② 양 승상이 자신을 하남 땅 벼을 입은 선비라고 칭한 것은 자신이 예전에 벼슬이 없는 평범한 선비였음을 표현한 것일 뿐, 불가와의 인연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④ 양 승상은 자신이 불가와 인연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도에 귀의하겠다고 결심한다.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기 위해 남해를 건너는 것은 불도에 귀의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 ⑤ 남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전생에 위 부인을 모시던 팔선녀였음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 양 승상이 불가와 인연이 있다는 사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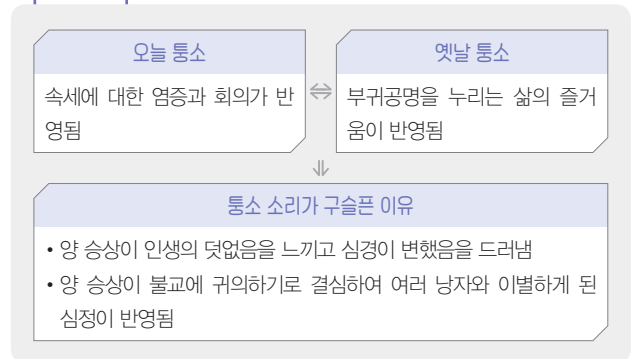
07 인물·사건 + 배경·소재

(마)에서 양 부인은 오늘 통소는 옛날 통소가 아니라며 통소 소리가 슬픈 이유를 묻고 있다. 따라서 구슬픈 ㉠ '오늘 통소'는 속세에 대한 염증과 회의를 반영된 소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 '옛날 통소'는 부귀공명을 누리는 삶의 즐거움이 반영된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승상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은 속세의 삶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 것이다.

- ② ㉡에는 여덟 남자를 곁에 둔 삶의 즐거움이 반영되어 있으나, ㉠은 그런 삶에 대한 회의를 반영되어 있다.
- ④ ㉠에는 현재의 삶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은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는 관련이 없다.
- ⑤ ㉠은 꿈을 다 이루었음에도 허무함을 느끼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을 뿐, 꿈을 다 이루지 못한 미련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

알아두기 '통소 소리'의 의미와 역할



08 인물·사건 + 주제

남자들이 '분향 예불하여 상공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한 것은 불도에 귀의하겠다는 양 승상의 결심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에 더해 남자들은 '득도한 후에 부디 첩 등을 먼저 제도하소서'라며 양 승상에게 득도한 후에 자신들도 구제해 달라고 청한다. 따라서 남자들의 말이 소유가 불도를 닦은 뒤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진시황의 아방궁, 한 무제의 무릉, 현종 황제의 화청궁은 천고 영웅이던 세 임금의 부귀영화가 다 한때였으며 이제는 사라졌음을 보여 주는 소재로,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낸다.

- ② 승상은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남자의 옥용화태' 또한 시간이 흐르면 쓸쓸하게 사라질 대상이라고 보고 부질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승상은 진시황의 아방궁, 한 무제의 무릉, 현종 황제의 화청궁에서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어이 인생이 덧없지 않으리오?'라며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생불멸할 도를 얻어 세상 고락을 초월'하는 삶은 불도를 닦는 삶으로, 소유가 이런 삶에 귀의한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자로 돌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알아두기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소재

- 진시황의 아방궁
- 한 무제의 무릉
- 현종 황제 태진비로 더불어 노시던 화청궁

'이 세 임금은 천고 영웅이라
~ 호화 부귀 백 년을 짧게 여
기더니 이제 다 어디 있느냐?'

부귀영화를 누리다 사라진 영웅들의 삶을 통해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보여 줌

07 구문동 3

본문 114~11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춘몽 04 암자

실력 문제

05 ① 06 ③ 07 ① 08 ③

- 01 양 승상은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서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호승에게 "노부가 그 화상이냐?"라고 묻고 있다.
- 02 (아)에서 양 승상은 홀연히 나타난 호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 03 (자)에서 호승은 춘몽을 깨게 해 달라는 승상의 말에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면서 도술을 부리는데, 이는 승상의 '춘몽'을 깨우기 위한 행위이다.
- 04 (차)에서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다고 한 것을 통해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05 서술

호승은 상대방의 처지를 설명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직접 밝히지 않고 양 소유가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호승은 양 소유의 화상에 동의를 표하거나 '십 년을 동치하였다는' 정보를 제시할 뿐, 양 소유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③ 호승은 '십 년을 동치'한 일이 있음을 언급하였을 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꿈에서 본 일만 기억하는 양 승상이 총명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 ④ 꿈에서 잠깐 만나 본 일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호승이 아니라 양 소유이며, 호승은 이에 동의만 표하였다.
- ⑤ 호승은 양 승상이 춘몽에서 깨기를 촉구하고는 있으나, 양 승상을 도와준 과거의 경험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06 인물·사건

㉠, ㉡, ㉢, ㉣은 호승을 가리키나, ㉤ '귀인'은 양소유(승상)를 가리킨다.

오답 풀이 ① ㉠ '산야 사람'은 호승이 자신을 일컫는 말이다.

② ㉡ '이인'은 호승이 재주가神通하고 비상한 사람임을 승상이 알아 보았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④ ㉢ '화상'은 승상이 꿈속의 꿈(현실 세계에서 본 호승을 일컫는 말이다).

⑤ ㉣ '사부'는 승상이 호승을 일컫는 말이다.

07 인물·사건

(아)에서 호승은 양 승상 앞에 홀연히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자)에서 도술을 이용해 양 승상이 꿈에서 깨어나도록 함으로써 사건을 전환하고 있다(㉡).

오답 풀이 ㉢. 호승은 양 승상이 꿈에서 깨도록 이끌어 주고 있을 뿐, 양 승상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지 않다. 또한 춘몽에서 깨지 못하였다는 호승의 말에 어찌하면 춘몽을 깨겠냐고 되묻는 것으로 보아, 양 승상은 꿈에서 깨기를 망설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호승이 도술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는 양 승상을 꿈에서 깨워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다. 양 승상이 꿈에서 깨지 못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알아두기 '호승'의 정체와 역할

호승의 말과 행동

- 양 승상에게 '평생 고인'을 몰라보고, '십 년을 동치하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함
- 도술로 양 승상을 꿈에서 깨움

정체와 역할

- 성진의 스승 육관 대사로, 성진의 세계와 양소유의 세계를 연결함
- 성진을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여 사건을 전환시킴

08 인물·사건 + 서술

㉢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계속 직명이 있었'다는 것은 성진의 꿈속 인물인 양 승상의 삶의 모습이므로, 득도하지 못한 성진의 세속적 욕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양 승상이 꿈에서 경험한 일, 즉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 놀았던 일은 꿈꾸기 전인 현실 세계의 성진이 겪은 일로, 꿈속 인물인 양 승상은 또 다른 꿈을 통해 그 현실을 본 것이다.

② 호승이 양 승상과 십 년을 동치했다는 것은 성진이 꿈을 꾸기 전인 현실 세계에서 육관 대사와 성진이 스승과 제자로 함께 지낸 모습을 의미한다.

- ④ 호승이 양 승상에게 춘몽을 깨지 못했다고 한 것은, 양 승상이 성진의 꿈속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 ⑤ 호승이 도술을 부리자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사라지고 제 몸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는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려 준다.

07 구문동 4

본문 116~11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염주 04 나비

실력 문제

05 ② 06 ⑤ 07 ③ 08 ③

- 01 (타)에서 성진은 꿈에서 깬 뒤 육관 대사에게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 02 (타)에서 육관 대사는 꿈과 인간 세상을 다르다고 한 성진의 말을 듣고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다고 질책하고 있다.
- 03 (카)에서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진의 신분이 승려임을 보여 준다.
- 04 (타)에서 육관 대사는 꿈과 인간 세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성진의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된 옛말을 언급하고 있다.

05 인물·사건

성진은 꿈에서 깬 뒤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도 다 하룻밤의 꿈이고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깨닫고 있을 뿐, 여덟 낭자와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성진은 육관 대사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③ 성진은 꿈에서 깨어나 양소유의 삶, 즉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부귀영화를 누린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④ 육관 대사가 성진에게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라고 묻은 것은, 그가 성진이 속세를 경험한 꿈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팔선녀는 육관 대사를 찾아가 하룻밤 꿈에 큰 깨달음을 얻었음을 말하며 불문에 귀의하여 가르침을 받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06 주제

육관 대사는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는 성진에게 꿈과 인간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꿈과 현실은 다르지 않으니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육관 대사는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 했을 뿐, 꿈이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육관 대사는 꿈과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뿐, 진리를 깨닫는 일이 어렵다고 하지는 않았다.

③ 육관 대사는 꿈을 꾸고 깬 것은 모두 성진 스스로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을 뿐,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④육관 대사는 꿈과 현실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 꿈을 통해 참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07 서술

(카)에서는 성진이 꿈에서 깨어 꿈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ㄱ). 또한 (카)의 마지막에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라는 성진의 깨달음을 덧붙여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ㄷ).

오답 풀이 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ㄷ. 서술자가 인물의 처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논평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8 인물·사건

㉠은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 소유의 삶을 경험하게 만든 원인에 해당한다. 즉 불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세속적 욕망을 품은 일을 이르는 것이므로, ‘첫 번째 회의를 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꿈에서 양 승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던 경험에 해당하므로 팔선녀를 만난 직후인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양 승상으로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후 호승의 도술로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었음을 보여 준다.

④ ㉠은 참과 거짓, 꿈과 현실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같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이는 육관 대사의 가르침에 의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불교에 정진하려는 성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부정하는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독해 체크

본문 118쪽

- ① 세속 ② 잘못 ③ 호승 ④ 팔선녀 ⑤ 부귀영화
⑥ 인간 ⑦ 꿈 ⑧ 인생무상

+ 어휘 체크

본문 119쪽

- 1 (1) 연고 (2) 상종 (3) 지척
2 출가 - 가부 - 부귀영화 - 화석 - 석양 - 양심

갈래 국문 소설, 역사 소설, 군담 소설

성격 민족적, 비판적

주제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

특징

-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에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함
-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 달리 비극적으로 끝남
-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이 나타남

확인 문제

01 × 02 ○ 03 의리 04 호왕

실력 문제

05 ④ 06 ④ 07 ② 08 ⑤

01 호왕은 임경업에게 항복을 요구하지만, 임경업은 당당하게 충절을 지킨다. 이러한 임경업의 강직함에 호왕은 탄복할 뿐, 동정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02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에 탄복하여 임경업의 원대로 하겠다고 하며 세자와 대군을 풀어 준다. 이로 보아 임경업이 호왕에게 세자와 대군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03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임경업은 호국으로 보내져 호군으로서 명군과 싸우지만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 역으로 호국을 치려 하다가 실패하여 호군에게 잡힌다.

04 임경업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호왕에게 대꾸하고 있다. 이러한 임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한 '호왕'은 임경업을 묶은 것을 풀어 주었다.

05 인물·사건
임경업은 호왕에게 세자와 대군을 풀어 줄 것을 청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청을 들어준 호왕의 진심에 감동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호왕은 금을 청한 세자와 달리 조선에서 잡혀 온 사람을 청한 대군을 기특히 여겼다.

② (가)에서 호왕은 임경업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렸다고 알리며, 자신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나)에서 임경업은 세자와 대군을 모시고 가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세자와 대군의 안위를 걱정하였다.

⑤ (나)에서 세자와 대군은 임경업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으나, 임경업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였다.

06 서술
(가)는 임경업과 호왕 간의 대화, (나)는 임경업과 세자, 대군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작품 전반적으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 부분이 있으나, (가)와 (나)에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낭만적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가)와 (나)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특정한 소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는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없다. 인물이 처한 상황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07 인물·사건

(가)에서 호왕이 권위를 내세워 임경업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임경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고 있다. 호왕은 이러한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세자와 대군을 풀어 주었다.

오답 풀이 ①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에 탄복했을 뿐, 임경업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다.

③ 임경업은 호왕에게 세자와 대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기는 했으나, 그 대가로 자신의 항복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④ 호왕은 임경업이 한결같이 충절을 지켰기 때문에 세자와 대군을 풀어 준 것일 뿐, 세자와 대군의 도움을 받아 임경업의 마음을 돌리려 한 것은 아니다.

⑤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에 탄복하여 세자와 대군을 조선으로 돌려 보내 준 것일 뿐, 세자와 대군이 조선에 돌아가 임경업을 처벌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알아두기 '임경업'과 '호왕'의 갈등 양상

갈등 내용	호왕이 권위를 내세워 임경업에게 항복을 요구함
해소 과정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임경업의 충의에 감복한 호왕이 임경업의 요구를 들어줌



임경업의 용맹과 충의가 강조됨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주제

임경업이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오리까'라고 한 것은 고국에 돌아가는 세자, 대군에게 하직하면서 자신이 직접 모시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호왕이 세자와 대군에게 굴욕을 주는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임경업은 호왕에게 조선의 왕이 나라를 위하여 호왕에게 항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임경업은 죽음의 위기 순간에도 호왕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청나라와 적극적으로 대결하려는 임경업의 태도로 볼 수 있다.

③ 임경업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호왕에게 세자와 대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임경업의 충성심을 보여 준다.

④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사람들과 함께 귀국하기를 청하는데, 이는 병자호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난을 위로하고 보상해 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함	
↓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 네게 행복하셨거니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행복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음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대군과 공중 비빈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실이 반영되어 있음

08 임경업전 ②

본문 122~12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조강지처 04 절개

실력 문제

05 ③ 06 ⑤ 07 ② 08 ②

- 01 (라)에서 김자점은 임경업이 돌아오는 통지문을 보고, 그가 돌아오면 역모를 실행하려는 자신의 계교를 이루지 못할까 봐 임금에게 임경업이 반역 죄인이라고 모함하고 있다.
- 02 (마)에서 의주 백성들은 임경업이 역적으로 잡혀가는 상황을 보며 남녀노소 없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퍼하였다.
- 03 (다)에서 임경업은 자신의 부마(사위)가 되어 부귀를 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호왕의 권유에 대해 '조강지처(아내)'가 있어서 그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 04 (다)에서 호국의 신하들은 임경업이 '절개'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이라 두어도 무익하고 보내도 해로움이 없다며 임경업을 조선에 보내자고 호왕을 설득하고 있다.

05 인물·사건

김자점은 임경업이 돌아오면 자신의 계교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 임경업을 해하려는 것일 뿐, 세자와 대군이 귀국하는 것을 못마땅해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호국의 신하들은 임경업을 두어도 무익하고 조선에 보내도 해로움이 없으며,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라며 임경업을 조선에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하였다.

② (다)에서 호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큰 잔치를 벌여 임경업을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내면서 임경업을 의주까지 호송해 주었다.

④ (라)에서 임금은 임경업이 반역 죄인이라는 김자점의 말에 크게 꾸짖으면서 임경업에 대한 높은 신의를 보였다.

⑤ (다)에서 임경업은 숙모 공주의 관상 보기를 앞두고 부마에 뽐힐까 두려워하여 신발 속에 숨을 넣어 키가 커 보이도록 꾸몄다.

06 인물·사건 + 서술

임경업은 호왕의 권유를 거절하면 자신이 풀려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밝히며 호왕의 권유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임경업은 '지극히 황공하며', '존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인 호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임경업은 조강지처가 있다고 말하면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는 의도를 전하고 있다.

③ ①은 자신의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호왕의 권유에 대한 응답의 말이다.

④ 임경업은 자신이 조강지처가 있는 처지임을 언급하며 호왕의 권유를 거절하고 있다.

07 인물·사건

임경업을 부마로 삼으려고 한 것은 호왕이 임경업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왕은 공주의 관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임경업을 부마로 삼으려는 마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경업에 대한 호왕의 호감이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임경업의 관상을 본 공주는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인정하나 키가 큰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후 이와 관련한 공주의 내적 갈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호왕은 결국 임경업을 부마로 삼으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세자와 대군이 다시 호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경업이 조선으로 돌아가게 된다.

④ 공주는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인정하고 있으며, 호왕 역시 임경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임경업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공주와 호왕의 갈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임경업은 공주가 천하절색임에도 불구하고 부마로 뽐힐 것을 두려워하여 키를 속이고 있다. 따라서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두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인물·사건 + 서술

호국의 신하들은 임경업의 절개와 충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임경업을 조선으로 돌려보내자고 호왕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청나라가 임경업의 충성심을 조롱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임경업은 자신의 부마가 될 것을 권유하는 호왕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의 절개와 충성심이 청중에게 즉각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김자점이 임경업을 모함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김자점이 아무 잘못이 없는 임경업을 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졌을 것이며,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④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이야기에 몰입한 청중은 임경업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며 사건을 보다 생생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⑤ 죄 없는 임경업이 잡혀가는 장면에서 의주 백성들은 남녀노소 없이 슬프게 울고 있는데, 이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을 흠모하는 청중도 자신의 일처럼 슬퍼했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확인 문제

01 × 02 ○ 03 옥졸 04 탈출

심력 문제

05 ① 06 ① 07 ② 08 ⑤ 09 ⑤

01 (바)에서 임경업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이유를 모른 채 세자와 대군이 자신이 갇힌 일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세자와 대군이 자신을 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02 (아)에서 김자점은 만고 충신인 임경업을 해하려 하지 말고 쉬게 하라는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심복 수십 명을 매복시켜 임경업을 해하였다.

03 (바)에서 임경업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않는데, 이는 김자점이 옥졸에게 분부를 내린 바, 즉 임경업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흥계를 꾸밈기 때문이다.

04 (사)에서 전옥 관원의 도움으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흥계임을 알게 된 임경업은 옥문을 깨치고 '탈출'하여 임금을 뵈러 간다.

05 서술

임경업과 김자점의 대립 구도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어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서술자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임경업과 적대자인 김자점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도술 대결을 펼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임경업이 전옥 관원을 통해 자신이 옥에 갇힌 흥계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뿐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인물·사건

㉠ '전옥 관원'은 임경업이 역적으로 몰려 옥에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흥계임을 알려 주면서 임경업에게 누명을 벗으라고 조언하였다.

오답 풀이 ② 전옥 관원은 임경업의 불쌍한 처지를 알고 임경업이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흥계임을 알려 주기는 하나, 자신이 직접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③ 전옥 관원은 임경업에게 누명을 벗으라는 말은 하였지만, 임경업을 풀어 준 것은 아니다. 임경업은 스스로 옥문을 깨고 탈출하였다.

④ 김자점의 지시를 받은 인물은 옥졸이며, 전옥 관원은 강직한 인물로 임경업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다.

⑤ 전옥 관원은 임경업이 역적으로 몰려 옥에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흥계임을 알려 줄 뿐, 김자점과 임경업의 갈등을 증대하지는 않았다.

07 서술

[A]에서 임경업은 복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일, 간인에게 속아 복경에 잡혀갔다가 살아 돌아온 일, 의주에서 아무 연고도 모르고 잡힌 일 등 자신이 겪은 지난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뒤, 임금을 만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는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의탁하고 있지 않다.

④ [A]에서는 자신의 심정을 실제 느끼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08 인물·사건

임경업이 김자점의 심복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수십 명이 매복하였다가 불시에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임경업은 이들에게 여러 번 맞아 심하게 다친 것이지,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심복 수십 명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가 무방비 상태인 임경업을 무차별적으로 해한 것으로 보아, 김자점은 비열하고 난폭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임경업은 매복한 김자점의 심복들에게 여러 번 맞아 거의 죽을 정도로 다쳤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임경업은 김자점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임경업은 김자점의 심복들이 불시에 달려들어 때릴 때 손에 촌철, 즉 작은 쇠붙이나 무기가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크게 다쳤다.

배경지식 실존 인물인 임경업과 김자점

임경업

조선 인조 때의 명장(1594~1646). 이괄의 난에 공을 세우고, 병자호란 때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음

김자점

조선 중기의 문신(1588~1651). 인조반정 때에 공을 세워 영의정에 이르렀음. 효종이 즉위한 후 파직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선이 북벌(北伐)을 계획하고 있음을 청나라에 밀고하여 역모죄로 처형됨

09 인물·사건

임금은 임경업에게 그간의 사정을 듣고 크게 노하여 충신인 임경업을 죽이려고 한 김자점을 꾸짖고 있다. 따라서 차분한 목소리와 타이르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임경업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이유를 모른 채 세자와 대군이 자신의 일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은 적절하다.

② 임금은 멀리 타국에서 돌아온 임경업을 반기는 한편 자신에게 청죄하는 임경업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달라는 말은 적절하다.

③ 임경업은 여러 어려움을 거친 끝에 임금을 다시 만난 상황에서 죽어도 한이 없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여 달라는 말은 적절하다.

④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흥계임을 알게 된 임경업은 크게 노하여 김자점을 꾸짖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크게 분노한 표정과 큰 목소리로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은 적절하다.

확인 문제

01 × 02 ○ 03 죽음 04 꿈

실력 문제

05 ① 06 ① 07 ④ 08 ⑤

- 01 (자)에서 대군은 김자점이 임경업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는 있으나, 임경업이 옥에 다시 갇힌 것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임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차)에서 우의정 이시백은 반심을 품고 있는 김자점의 일을 임금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 임금은 김자점을 국문한 후 옥에 가둔다.
- 03 (자)에서 임경업은 김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천명이 다하여 옥중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 04 (차)에서 임금의 ‘꿈’에 임경업이 나와 김자점이 자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일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05 **서술**
임금이 꿈을 꾸기는 하였으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부분은 없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장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충신이자 영웅인 임경업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③ ‘기축 9월 26일이라.’에서 임경업이 죽은 구체적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소설 속 사건이 마치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④ 결말 부분에서 간신 김자점을 처형함으로써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의 상황과 사건의 내막을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 06 **배경·소재**
임경업은 임금의 꿈에 나타나 김자점이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과 김자점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 오답 풀이** ② 꿈을 통해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이 드러날 뿐, 임금의 비극적 죽음이 암시된 것은 아니다.
③ 임금과 임경업은 갈등 관계가 아니다. 한편 꿈을 통해 임금이 김자점의 실체를 알게 됨으로써 김자점과 그 삼족을 모두 처형하고 임경업이 억울함을 벗게 되므로, 이를 임경업과 김자점의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④ 꿈에 등장한 임경업은 자신이 죽은 이유와 김자점의 실체를 밝혔을 뿐, 임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⑤ 임경업은 임금에게 진실을 알려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07 인물·사건

우의정 이시백은 김자점이 반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임금에게 이를 알렸지만, 임경업이 임금의 꿈에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자)에서 대군은 김자점을 의심하여 임금에게 김자점이 만고 충신인 임경업을 해치려 한다고 아뢰고 있다.
② (차)에서 임금이 경업의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임금은 이전에 임경업이 자결한 것으로 알고 승지를 보내 위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차)에서 대군은 임경업이 죽은 후 친히 조문하고 예관을 보내 삼년 제사를 받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임경업의 공을 인정하였기에 그의 죽음을 예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차)에서 임경업의 자손과 친척들은 임경업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급히 경성에 이르렀으나, 임경업이 이미 죽었음을 알고 통곡하였다.

08 주제

임금은 임경업이 죽은 이유를 알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할 만큼 임경업을 아끼는 인물이다. 이후 임금은 임경업을 모해한 김자점을 처형하여 임경업의 원한을 풀어 준다. 따라서 임금이 임경업의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을 위로하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아무 죄가 없는 임경업이 김자점의 흉계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설정은 민중의 소망이 좌절된 부정적 현실의 책임이 지배층에게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임경업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임경업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영웅이며, 민중이 자신들의 소망이 반영된 영웅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김자점이 역심을 품고 임경업을 해하였다는 것은 나라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지배층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임금은 김자점의 삼족을 처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사리사욕만 채우던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작품의 주제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병자호란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의 심리를 담음
영웅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일생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는 간신 때문에 임경업과 같은 영웅이 희생된 현실을 반영함

+ 독해 체크

본문 128쪽

- ① 호왕 ② 꿈 ③ 영웅 ④ 부마 ⑤ 간신 ⑥ 항복
⑦ 음모 ⑧ 병자호란 ⑨ 비극

+ 어휘 체크

본문 129쪽

- 1 (1) 계교 (2) 절개 (3) 기별
2 <가로> ① 통곡 ② 승복하다 ④ 하직
<세로> ① 통분 ③ 탄복 ⑤ 강직하다

갈래 희곡, 단막극, 사실주의 극

성격 사실적, 세태 고발적

주제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과 회복의 가능성

특징

-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함
-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로 이루어짐
- 물질문명 속에서 현대인이 소외되고 비인간화되는 세태를 고발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자신 05 공장

실력 문제

06 ⑤ 07 ③ 08 ④ 09 ④ 10 ④

01 이 작품은 희곡으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므로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다.

02 이 작품은 병원이라는 현실적 공간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가)에서는 수술을 요구하는 인옥과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의 외적 갈등이 중심을 이룬다. 즉 회기는 인옥의 수술을 두고 내적 갈등을 하고 있지 않다.

04 회기는 자신은 원래 '자신' 없는 일에 손을 안 대는 성질이라서 인옥의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05 인옥은 담배 '공장'의 포장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

06 인물·사건

인옥의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라는 대사에서 비판적인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즉 인옥은 살기 위해 회기에게 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를 통해 금숙이 인옥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음을 알 수 있다.

② 회기는 수술을 해 달라는 인옥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부하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태도를 보인다.

③ 회기는 인옥의 수술을 거부하며 자신은 원래 자신 없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회기가 인옥의 수술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이라는 인옥의 대사를 통해 인옥이 담배 포장공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성난 기계」의 등장인물

회기	폐 전문 외과 의사. 냉정하고 빈틈이 없으나 자신보다 비인간적인 상현을 만난 후 인간성을 회복함
금숙	간호사. 회기를 흠모하며 인옥을 딱하게 여김
인옥	담배 공장의 포장공.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으며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회기에게 수술을 부탁함
상현	인옥의 남편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함. 돈과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비정함을 보임

07 주제

㉠은 인옥의 애원에도 회기가 수술을 거절하자 회기의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기계에 빗대어 비판한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인옥은 자신의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회기가 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④ 회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의미로 '기계' 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상실된 비인간적인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이다.

⑤ 회기가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거절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08 배경·소재

㉠ '알맹이'는 내면의 상태, 정신세계, 인간성 등을 의미하고
㉡ '포장'은 겉모습, 육체 등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③ '손'과 '육체'는 ㉡ '포장'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마음'과 '정신'은 ㉠ '알맹이'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② '나'와 '어린것들'은 인옥이 마음으로 생각한 대상이므로 모두 ㉠ '알맹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좋은 약'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임시방편을 의미하고,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9 현상화 방식

인옥은 수술을 해 달라는 애원에도 냉정하게 거절하는 회기를 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것이므로, ㉠에는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조소하는'은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또는 그렇게 웃는'을 의미한다. 회기가 냉정한 태도로 인옥의 수술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에는 '조소하는 태도로'가 어울린다.

② 인옥이 회기에게 수술을 해 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이므로 ㉠에는 '다시 애원하며'가 어울린다.

③ 회기가 수술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에는 '냉정하게'가 어울린다.

⑤ 회기가 근본적인 치료 대신 임시방편을 권한 것에 대한 인옥의 비판에 난처한 상황이므로 ㉠에는 '약간 난처해하며'가 어울린다.

10 현상화 방식

[A]는 희곡, <보기>는 소설이다.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으나, [A]에서는 서술자가 없으므로 인물의 심리가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회곡은 사건을 현재형으로 나타낸다.
 ③ 회곡인 [A]는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제시되는 데 비해, 소설인 <보기>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다.
 ⑤ [A]와 <보기>는 모두 회기와 인옥의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09 성난 기계 2

본문 132~13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노동 04 담배

실력 문제

05 ② 06 ② 07 ⑤ 08 ⑤

- 01 회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도의심보다는 자신의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공명심을 가지고 외과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
 02 회기의 말에 따르면 상현의 아내인 인옥은 치료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옥은 돈과 상관없이 수술을 받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03 (나)에서 금숙이 수술을 거부당한 인옥에 대해 연민을 보이자 회기는 자신의 의술에 대해 돌아본다. 그리고 폐 수술을 하는 행위를 두고 닥치는 대로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 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 내는 하나의 '노동'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04 (다)의 '내 벌이라는 게 처가 공장에서 나올 때 속옷이나 치마 폭에 감춰 가지고 나오는 담배를 팔아야만…….'을 통해 상현이 아내가 공장에서 몰래 숨겨 나오는 '담배'를 팔아 벌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인물·사건

(다)에서 상현은 경제적 이유를 들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고 있을 뿐, 상현이 회기의 수술 실력을 의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상현은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고 아내의 수술을 상현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금숙은 회기가 지금까지 수술에 실수가 없었다는 점과 귀중한 생명을 살려 내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회기의 의사로서의 능력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상현은 아내가 공장에서 몰래 숨겨 나오는 담배를 파는 일로 벌이를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현의 아내가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회기는 수술을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 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 내는 하나의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계적인 노동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인물·사건

'요즘 세상은 돈 있고 병 치료도 하는 법이지…….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로 보아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한 형편으로 수술하는 데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아내의 수술과 관련하여 공장이나 감독관, 아이들의 의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아내가 자신과 수술에 대해 의논하지 않은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수술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07 형상화 방식

㉔은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자신의 무능함과 가난한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어조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은 회기가 수술을 완고하게 거절한 이유를 묻는 금숙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냉정했던 것인지를 돌아보는 상황이므로, 회의감이 느껴지는 어조는 적절하다.

② ㉔은 상현이 치료비는 걱정 없다는 아내의 말과 달리 돈이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므로,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펄쩍 뛰는 듯한 연기는 적절하다.

③ ㉔은 회기가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려는 태도는 적절하다.

④ ㉔은 상현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속마음을 들킨 상황이므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은 적절하다.

08 주제

상현의 아내가 치료비는 걱정 없다고 한 것은 인물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낼 뿐,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로 보기 어렵다.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는 상현의 아내를 가엾게 여기는 금숙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경제적 이유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상현의 아내의 처지를 통해 비정한 현실이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수술을 거절당한 상현의 아내를 가엾게 여기는 금숙은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성을 중시하는 인물이므로,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지 않은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아픈 환자의 수술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회기는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로, 비정한 현실에 종속된 인물로 볼 수 있다.

④ 의사로서의 도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공명심으로 의사생활을 한다는 회기의 태도는 비정한 현실이 인간의 태도와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지식 + 차법석 작품의 사실주의적 경향

사실주의 극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유행한 연극 양식으로, 실재하는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묘사에 주목하였다. 연극이 사회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차법석은 1950년대 사회 현실을 사실주의 극 속에 나타냈다. 그는 전쟁 이후의 상처를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고,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 사회 현실을 비판하였다.

확인 문제

01 × 02 ○ 03 분노 04 수술

실력 문제

05 ⑤ 06 ⑤ 07 ③

01 (라)에서 상현은 아내의 죽음을 방치하려는 자신을 회기가 “그건 살인이나 다음 없소…….” 등과 같이 노골적으로 비난하자,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2 이 작품은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던 회기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과 회복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03 회기는 아내의 죽음을 방치하려는 상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한다.

04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한 회기는 간호사 금숙을 시켜 인옥에게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찾아오라는 편지를 보내도록 한다.

05 현상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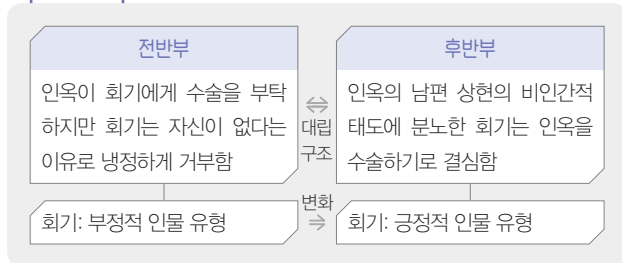
이 작품은 회기가 근무하는 병원(외과 과장실)이라는 단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즉 공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전반부에 인옥의 수술을 냉정하게 거부하던 회기는 후반부에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한다. 즉 전반부에서 부정적 인물 유형이었던 회기가 후반부에서는 긍정적 인물 유형으로 변화된다.

② 담배의 ‘포장’과 ‘알맹이’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통해 인간성 상실과 회복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작품은 회기, 인옥, 상현, 금숙이라는 소수의 인물만 등장하며, 인옥의 수술을 두고 대화하는 단순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알아두기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립 구조



06 배경·소재 + 주제

‘포장’과 ‘알맹이’는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상현은 부정적 인물이므로, ‘포장’이 상현의 비정함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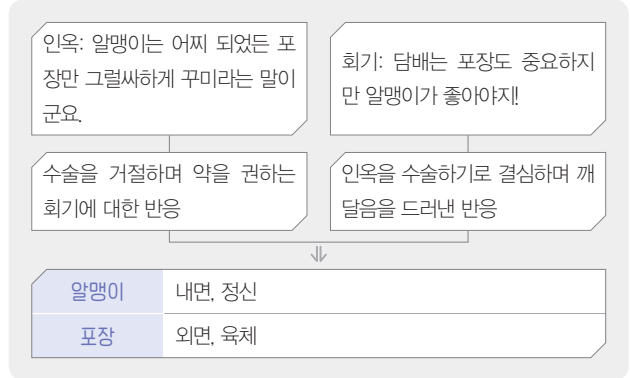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① 회기가 ㉠의 깨달음을 얻고 인간성을 회복한 것에서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② ㉠은 문맥상 결과 속이 모두 인간다워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은 대단원에 이르러 회기가 결과 속이 모두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④ ㉠에서 ‘포장’은 겉모습을 의미하고, ‘알맹이’는 내면을 의미한다.

알아두기 ‘알맹이’, ‘포장’의 의미



07 인물·사건 + 주제

‘성난 기계’는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던 회기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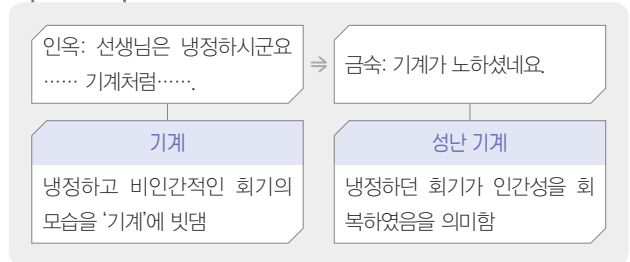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① 회기가 수술을 실패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인옥의 수술을 냉정하게 거절하던 회기는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한 회기는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회기가 의사 생활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회기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알아두기 ‘기계’와 ‘성난 기계’의 상징적 의미



독해 체크

본문 136쪽

- ① 돈 ② 비인간적 ③ 수술 ④ 회복 ⑤ 포장
⑥ 대립 ⑦ 변화 ⑧ 분노 ⑨ 희망

어휘 체크

본문 137쪽

- 1 (1) 선심 (2) 공명심 (3) 노골적
2 <가로> ① 인력 ② 냉담하다 ③ 결심
<세로> ① 인술 ④ 미심쩍다

갈래 시나리오**성격** 비판적, 사실 고발적**주제** 전후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로 인한 개인의 상실과 절망

특징

- 1959년에 발표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함
- 다양한 영상 기법을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주인공의 인간상과 내면의 허무 의식 표출에 중점을 둠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양심 06 비극
07 골목

심력 문제

08 ① 09 ④ 10 ⑤ 11 ④

01 이 작품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평범한 인물들인 철호와 가족들이 빈곤과 부조리를 겪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02 이 작품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03 영호는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는 일은 싫다고 말하면서, 제대한 지 2년이 넘도록 취직하지 않은 채 방황하고 있다.

04 영호의 말에 따르면 철호는 전차 값도 안 되는 적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신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05 철호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삶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6 영호는 어금니가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디며 살아가는 철호의 삶을 ‘비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07 명숙은 집 밖의 ‘골목’에서 방 안에 있는 철호와 영호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엿듣고 있다.

08 형상화 방식

현실에 순응하면서 양심을 지키려는 철호와 양심이나 윤리 따위를 버려야 잘살 수 있다는 영호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에서 공간이 달라지고 있으나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아니며,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작품은 시나리오로,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제시된다.

④ (가)와 (나)에 인물이 독백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부각되고 있다.

⑤ (가)와 (나)에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나타나지 않는다.

09 인물·사건

철호는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하며 영호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염려하고 있다(ㄴ). 또한 영호는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이라고 말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철호는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는 일은 싫다고 말하면서 취직을 하지 않으려는 영호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ㄴ. 영호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심과 윤리를 저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철호를 존경하고 있다. 따라서 영호가 철호의 무능력을 탓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아두기 S# 74에 나타난 ‘철호’와 ‘영호’의 대조적인 태도

철호	영호
•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치통의 고통도 참고 견뎌 •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가치관을 지님	• 가난한 삶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일할 생각을 하지 않음 •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가치관을 드러냄

10 형상화 방식

[A]에서는 명숙이 엿듣고 있는 화면에 철호와 영호의 음성을 효과음(E)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들과 다른 공간(골목)에 있는 명숙이 철호와 영호의 갈등 상황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명숙이 철호와 영호를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철호와 영호가 갈등하는 원인은 취직을 하지 않는 영호의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때 두 사람의 갈등은 명숙과 관련이 없다.

③ 명숙이 철호와 영호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명숙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

11 인물·사건

영호는 양심이나 윤리를 저버리더라도 잘살고 싶다는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 ‘용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난하더라도 양심과 윤리를 지키면서 깨끗이 살자는 것은 철호의 가치관에 해당한다.
- ② 아픈 걸 견디면서 돈을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은 철호이며, 영호는 이런 삶을 비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③ 영호는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며, 이를 더 넓은 테두리로 나간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더 좁은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호의 욕망과 거리가 멀다.
- ⑤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에 맞게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철호의 가치관에 더 가깝다.

10 오답탄 2

본문 140~141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영호 04 치과

실력 문제

05 ② 06 ② 07 ③ 08 ④

- 01 (다)에서 명숙의 말에 따르면 철호의 아내는 출산 중에 아이가 걸려 위독한 상황에 빠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고, 철호는 아내의 죽음에 절망한다.
- 02 철호는 은행 강도를 하다 잡혀간 영호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오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는 명숙은 철호에게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슈.'라고 말한다.
- 03 (바)에서 철호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후 거리에서 과거 자신이 '영호'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아내의 죽음이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고자 한 자신 때문이라는 자괴감을 느낀다.
- 04 (사)에서 산부인과에서 나와 거리를 기웃거리던 철호는 '치과'라는 간판을 보고 그동안 앓아 왔던 치통을 자각하고선 이를 뽑기로 결심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 05 **형상화 방식**
철호는 동생 영호가 은행 강도로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내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나 버린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호는 영호에게 이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신념과 대조적으로 절망적 상황을 맞이한 철호의 비참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철호는 절망감에 빠진 상황이므로 자부심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 ③ 철호는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고자 한 자신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 ④ 철호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 ⑤ 철호는 영호에게 잘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알아두기 '철호'의 상황과 S# 107의 형상화 방식

철호의 상황

- 영호가 은행 강도로 잡혀갔다는 소식에 경찰서에 다녀옴
-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짐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 위로 철호가 영호에게 했던 말이 효과음으로 겹침

↓

인물의 절망적인 상황과, 인물의 심리(아내의 죽음이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고자 한 자신 때문이라는 자괴감)를 선명하게 제시함

06 인물·사건

(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원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는 것이 난처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고,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간호원의 반응이 의아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간호원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족인 철호를 경멸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고, 철호는 아내의 행방을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이므로 간호원을 무시하는 심리라고 볼 수 없다.

③ 간호원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철호는 아내의 행방을 궁금해할 뿐, 간호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간호원은 아내를 잃은 철호의 처지에 측은함을 느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철호는 아내의 행방이 궁금할 뿐, 간호원에게 미안함을 느낄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⑤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간호원의 반응에 난처함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호원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족인 철호에게 불쾌함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07 인물·사건

㉔에서 철호가 화석 같다고 한 것은, 그가 아내의 죽음을 짐작하고 큰 충격을 받았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철호는 영호의 일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명숙은 이를 모르고 영호에게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명숙이 철호가 가정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철호는 자신에게 원망스럽게 말하는 명숙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내가 위독한 상황임을 알리려는 명숙의 의도를 철호가 모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철호는 시체 안치실 앞에서 유령처럼 걷는데, 이는 철호가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철호는 길옆에 늘어선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면서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철호가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08 형상화 방식

〈보기〉에서는 '철호는 갑자기 이가 쭈시는 것을 느꼈다.'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한 반면, (사)에서는 '철호의 얼굴이 점점 찌푸러지며 손으로 볼을 움켜쥐었다.'와 같이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 오답 풀이** ① (사)의 공간적 배경은 <보기>와 동일하게 거리(길가)이다.
 ② (사)에 장면 해설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설한 부분은 없으며, 인물의 행동만 제시되어 있다.
 ③ (사)의 사건은 <보기>와 동일하게 철호가 길가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치과에 들어가는 것이다.
 ⑤ (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기>와 동일하게 철호 한 명뿐이다.

10 오발탄 ③

본문 142~14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이 04 해방촌

실력 문제

05 ② 06 ⑤ 07 ②

- 01 운전수와 조수는 철호가 목적지를 자주 바꾸자 못마땅해서 힐끗 돌아본다.
 02 네거리에서 울린 벨 소리는 갈 곳을 잃은 철호의 상황을 부각한다. 철호는 절망감에 빠져 있으며 그가 각성을 통해 희망을 되찾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03 ‘잃던 이’는 가난한 삶, 가장으로서의 압박감, 양심 등 철호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호가 잃던 ‘이’를 뽑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없애 버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철호는 택시에서 처음에 해방촌으로 가자고 말한다. ‘해방촌’은 철호의 집이 있는 동네로, 가난한 생활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05 인물·사건

과다 출혈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철호가 말한 ㉠ ‘가자…….’는 절망적 상황에 대한 철호의 절박함을 보여 주며,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철호는 죽은 아내가 있는 동대문 부인 병원으로 가려다가 목적지를 바꾼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막연히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철호는 비극적 현실로 인해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은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철호의 현실은 가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철호는 갈 곳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은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철호는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가족에게 애뜻함을 느끼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06 배경·소재 + 주제

사전적으로 ‘잘못 쓴 탄환’이라는 뜻의 ㉠ ‘오발탄’은 이 작품에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존재, 즉 절망적 상황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철호를 비유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 ‘의사’는 치과에서 철호의 잃던 이를 뽑아 주었을 뿐,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주제를 부각하지 않는다.

② ㉠ ‘자동차’는 철호가 타고 있을 뿐,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주제를 부각하지 않는다.

③ ㉠ ‘동대문 부인 병원’은 죽은 아내가 있는 곳이다.

④ ㉠ ‘종로서’는 동생 영호가 잡혀 있는 곳이다.

알아두기 ‘오발탄’의 의미

- 운전수: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 철호: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시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오발탄의 의미

-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철호의 모습을 비유함
-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을 상징함

07 인물·사건

<보기>의 윌리 로만은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이는 윌리 로만이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철호는 절망적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 그에 비해 윌리 로만은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기 위해 스스로 죽음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

③ 철호는 가장으로서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으며, 윌리 로만 역시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려는 책임감을 보이고 있다.

④ 철호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의 방향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다. 윌리 로만 역시 아들의 배반과 회사의 해고 통보로 인해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다.

⑤ 철호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결국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외부적 요소로 인해 좌절하고 만다. 윌리 로만 역시 성실하게 일하려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가족, 회사 등의 외부적 요소로 인해 좌절하고 만다.

+ 독해 체크

본문 144쪽

- ① 치과 ② 가자 ③ 양심 ④ 가난 ⑤ 해방
 ⑥ 자괴감 ⑦ 방향 ⑧ 비판

+ 어휘 체크

본문 145쪽

- 1 (1) 구실 (2) 요지경 (3) 역설
 2 (1) ㉠ (2) ㉠ (3) ㉠

11

규중칠우쟁론기 ① _작자 미상

갈래 국문 수필, 내간체 수필

성격 교훈적, 풍자적, 논쟁적, 우화적

주제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 풍자,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 추구

특징 • 부녀자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하여 세태를 풍자함
• 3인칭 시점의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태도로 서술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바느질
06 발음 07 공치사

실력 문제

08 ④ 09 ② 10 ③ 11 ④

- 01 이 작품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규중 부인과 규중 칠우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 02 이 작품은 의인화된 인물들이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보여 주기의 방식이 나타나므로, 극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3 이 작품은 바느질 도구를 사람처럼 표현하여 그 생김새나 쓰임새, 발음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이름을 붙였다.
- 04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여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내간체 수필이다. 당시 여성의 삶과 밀접한 바느질 도구들이 저마다 공을 내세우거나 인간을 원망하는 장면은,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펼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가부장적 질서에 갇혀 있던 봉건 사회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05 이 작품에서 규중 칠우로 등장하는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는 모두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이다.
- 06 자를 의인화한 척 부인은 자를 의미하는 한자 '척(尺)'과 발음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07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규중 칠우는 서로 남의 공은 폄하하면서 자신의 공을 생색내며 자랑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공치사'라고 한다.
- 08 **표현**
이 작품은 수필이지만 작품 속의 '나'가 아니라 규중 칠우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다. 작가는 관

찰자의 시각에서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묘사 위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인물의 내면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규중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바느질 도구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②, ③ 이 작품에서는 바느질 도구가 사람처럼 저마다 공치사를 하는 등의 허구적인 설정을 통해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규중 칠우의 이름은 각각의 생김새와 쓰임새에 따라 붙여졌다. 예를 들어 바늘은 허리가 가는 생김새에 따라 '세요 각시(細腰閼氏)'라 하고, 인두는 불에 달구어 사용하는 쓰임새에 따라 '인화 부인(引火夫人)'이라 한다.

09 **표현**

청홍 각시는 세요 각시를 향해 실 없이 바늘만으로는 옷을 성공적으로 꿰맬 수 없다며 자기의 공을 부각하고 있다. 척 부인과 교두 각시가 하는 일인 재단의 중요성을 부정하며 그 공을 깎아내리는 것은 세요 각시이다.

오답 풀이 ① 척 부인은 온갖 옷감을 나열하며 길이와 넓이를 재는 마름질이 옷을 짓는 일 중에서 가장 공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③ 세요 각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 '진주(眞珠) 열 그릇이나 펜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있다.

④ 이 작품을 시작하며 글쓴이는 선비가 문방사우를 가까이하듯 규중 부인들도 바느질에 쓰이는 일곱 가지 도구를 가까이하여 벗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다.

⑤ 교두 각시는 두 다리를 빨리 돌려 내달으면서 자기 공을 자랑하는데, 이 모습에서 교두 각시의 급한 성격과 조바심을 짐작할 수 있다.

10 **주제**

(나)에서 척 부인, 교두 각시, 세요 각시, 청홍 각시는 자신의 공만 내세우고 다른 이들의 공은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이기적이고 남을 헐뜯는 세태에 대해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은 이 작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가), (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작품에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작품의 규중 칠우는 각자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므로,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만 추구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⑤ 이 작품의 규중 칠우가 남을 깎아내리기는 하나, 남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주제**

〈보기〉의 글쓴이는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주먹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때 전체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규중 칠우에게 옷을 짓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옷이 제대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글쓴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규중 칠우는 저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보기>의 글쓴이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이 작품의 규중 칠우는 각자 자신의 공만 내세우며 주목받고 싶어 한다.
- ③ <보기>의 글쓴이는 전체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의 조화는 각자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몫의 역할이 잘 수행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의 규중 칠우는 이미 자신이 가진 재주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

11 규중칠우쟁론기 2

본문 148~149쪽

확인 문제

01 × 02 ○ 03 규중 부인 04 불평

실력 문제

05 ⑤ 06 ④ 07 ①

- 01 이 작품은 자기 공만 내세우고 다른 이들의 공을 깎아내리는 바느질 도구들의 모습을 풍자하여,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02 감토 할미는 규중 부인의 질책에 즉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처세술로, 규중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되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은근히 자신들의 공을 부각하고 있다.
- 03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규중 칠우가 앞다투어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잠에서 깬 '규중 부인'이 바느질을 인간의 공으로 돌린 후부터는 인간에 대한 불평을 함께하는 동맹 관계가 된다.
- 04 (라)에서 칠우는 자신들을 함부로 다루는 인간에 대한 불평을 쏟아 내면서 그간 힘들었던 점들을 하소연하고 있다.

05 주제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고, 각자 주어진 역할과 직분에 따라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 감토 할미가 규중 부인의 질책을 잘 무마하고 있지만, 이 작품의 주제가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이 작품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맞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지 않다.
- ③ 이 작품은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기만 하는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06 표현

㉔은 알미울 정도로 쌀쌀맞고 인정이 없는 것은 사람이고 공을 모르는 것은 일반 부녀자라는 의미로, 척 부인이 매정하게 굴며 자기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규중 부인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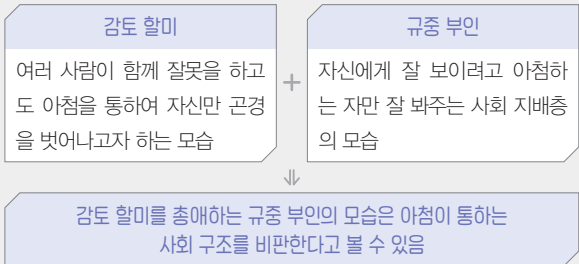
- 오답 풀이 ① ㉔은 감토 할미가 세요 각시의 뒤를 따라다니는 청홍 각시를 나무라는 말로, 크고 훌륭한 자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② ㉔은 감토 할미가 공치사하는 말로, 세요 각시에게 찢리는 것을 견딜 만큼 인내심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③ ㉔은 규중 부인이 공치사하는 말로, 칠우가 공이 있으나 사람이 칠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칠우의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 ⑤ ㉔은 세요 각시가 사람에 대해 불평하며 하는 말로, 자신이 사람을 미워해서 찢으려고 하는 것을 감토 할미가 밀어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7 주제

<보기>의 장부는 간사하고 아침하는 자들의 말에 솔깃한 임금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의 글쓴이 또한 규중 부인이 자신에게 아침하는 감토 할미만 잘 대해 주는 모습을 통해 사회 지배층의 잘못된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는 간신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남을 탓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 ③, ⑤ 이 작품의 규중 부인에게는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보기>에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나 잘못을 너그려이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보기>와 이 글 모두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알아두기 '감토 할미'와 '규중 부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점



+ 독해 체크

본문 150쪽

- ① 공치사 ② 불평 ③ 바늘 ④ 인두 ⑤ 관찰
⑥ 아침 ⑦ 인간

+ 어휘 체크

본문 151쪽

- 1 (1) 소임 (2) 침선 (3) 규중
2 (1) ㉔ (2) ㉔ (3) ㉔

3. 갈래 복합

본문 154~157쪽

01

오우가 / 꽃 출석부 1

가 [오우가_윤선도]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6수)

성격 예찬적, 자연 친화적

주제 다섯 벚(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에 대한 예찬

특징 •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그 속성을 인간의 덕성과 연결함
• 문답법, 대구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인상 깊게 표현함

나 [꽃 출석부 1_박완서]

갈래 경수필

성격 체험적, 사색적

주제 봄꽃에 대한 애정

특징 • 글쓴이의 세심한 관찰력과 섬세한 감정이 드러남
•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달 06 구름
07 대나무 08 복수초 09 잡초, 놀라움

심력 문제

10 ① 11 ③ 12 ② 13 ⑤ 14 ⑤ 15 ③
16 ③ 17 ③

01 (가)는 초장, 중장, 종장의 각 장이 2구씩으로 구성된 3장 6구 형식의 시조이다.

02 (가)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의인화하여 자연을 벗으로 여기는 한편, 그 속성을 예찬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3 (나)는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수필로, 허구를 더해 꾸며 쓴 글이 아니다.

04 (나)에는 가을에 심을 때는 하찮은 잡초 같았고 곧 자취도 없어졌던 복수초가 3월이 되자마자 섯노랗게 피어나고 눈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본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인식 변화가 드러나 있다.

05 (가)의 <제1수>에서 화자는 수석, 송죽, '달'의 '이 다섯'이 벚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석은 물과 바위,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가리킨다.

06 (가)의 <제2수>에서 '구름'은 깨끗하지만 검기를 자주 하며, '바람'은 소리가 맑지만 그칠 적이 많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둘 다 쉽게 변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7 (가)의 <제4수>에서는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제5수>에서는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08 (나)는 글쓴이가 이웃에게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아 심은 뒤, 복수초가 눈을 녹이고 섯노랗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09 (나)의 글쓴이는 처음에 복수초를 보고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고 하였으나, 섯노랗게 피어 난 복수초가 눈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드러냈다.

10 표현

(가)에서는 '검기', '푸르는 듯', '푸르니' 등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구름, 풀, 대나무를 각각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는 '흙갈색 잔뿌리', '검은 흙', '섯노란 꽃', '진한 황금색' 등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복수초'를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는 '축, 활짝'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인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와 (나)에서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는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는 의도를 강조하는 표현일 뿐,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나)에서는 설의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가)에서는 자연물을 '너'라고 지칭하거나 '술아'와 같이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11 표현

(가)는 '동산에 V 달 오르니 V 그 더욱 V 반갑구나.'와 같이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ㄱ). 또한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많도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등에서 유사한 구절을 짝 지어 표현하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한다(ㄷ).

오답 풀이 ㄴ. (가)에서 후렴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ㄷ. (가)는 대체로 3(4)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3(4)·4조가 나타난다.

12 시어(구)

(가)의 화자는 한겨울 눈서리를 이겨 내는 소나무의 모습에서 지조와 절개를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 '눈서리'는 소나무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눈서리는 소나무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이며, 그 시련을 이겨 낸, 변치 않는 소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③ 눈서리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평화나 희망과는 관련이 없다.

④ 눈서리는 시련을 주는 대상일 뿐, 외로움이나 고독감과는 관련이 없다.

13 화자·대상 + 표현

(가)의 <제4수>에서 화자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보편적 자연물과는 달리 겨울에도 깊은 땅속까지 뿌리가 곧은 소나무를 예찬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 또한 따뜻한 봄철에 꽃을 피우는 보편적 자연물과는 달리 추운 계절에 홀로 피어 있는 국화를 예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소나무에서, <보기>의 화자는 국화에서 지조와 절개를 발견하고 있을 뿐, 둘 다 대상이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② (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 모두 대상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보기>의 화자는 국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을 뿐, 그와 대조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보기>에서 계절에 따라 자연물이 변화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묘사의 방식도 사용되지 않았다.

14 글쓴이 + 표현

(나)의 글쓴이는 때가 되면 차례차례 피는 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머릿속에 ㉠ ‘출석부’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출석부의 꽃들이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태도로 꽃들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출석부’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피는 꽃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기대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100가지가 넘는 꽃들이 모두 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더 많은 종류의 꽃을 마당에 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② 글쓴이는 꽃을 보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있을 뿐, 자신이 꽃을 키워 냈다고 여기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③ 글쓴이가 출석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꽃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에게 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글쓴이는 자신이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하게 봄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조급함과 거리가 멀다.

15 글쓴이

[A]에서 글쓴이는 꽃에 애정을 갖고 자신이 부양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꽃을 통해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위로받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글쓴이는 꽃들을 식구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꽃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② 글쓴이는 기다리지 않아도 꽃들은 필 것이지만, 기다리는 기쁨이 있기에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100번이 넘는 출석부의 꽃들이 모두 출석하기를 바라기에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여름에는 꽃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6 시어(구) + 표현

㉠ ‘풀’은 푸르는 듯 누렇게 되는, 순간적이고 쉽게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가)의 화자는 이와 대비되는 ‘바위’의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고 작은 풀꽃’은 두터운 눈을 녹이고 살아남은 복수초로, 글쓴이에게 놀라움과 감탄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찬양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한편 ㉡은 눈 속에서 ‘셋노란 꽃’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글쓴이를 놀라게 하였으므로, 글쓴이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으로, 안도감과 거리가 멀다. 한편 (나)의 글쓴이는 ㉠이 눈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은 쉽게 변하는 속성을 지닌 대상이다. 한편 ㉡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을 뿐, 쉽게 변하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은 순간성을 지닌 대상으로, 화자는 ㉠에서 화려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 한편 ㉡은 작지만 셋노란 꽃을 피우고 있다는 점에서 글쓴이에게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다.

17 표현 + 주제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작지만 높이 떠서 밤중에 만물을 다 비추고, 보고도 말이 없는 ‘달’을 예찬하고 있다. 즉 화자는 ‘달’에게서 만물을 다 비추는 포용력과 말이 없는 과묵함이라는 미덕을 발견하고 있을 뿐, 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신감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제4수>에서 화자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다른 자연물과 달리, 눈서리라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소나무의 울곧은 지조를 예찬하고 있다.

②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쉽게 변하지 않고 곳곳하게 본래의 푸른색을 유지하는 대나무의 지조를 예찬하고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시들어 버릴 줄 알았던 복수초가 다음 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피는 모습을 보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⑤ (나)의 글쓴이는 황량한 마당에 피어난 복수초가 눈 속에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녹이고 더욱 셋노랑고 싱싱하게 피어 있는 복수초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초의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 내는 의지를 발견하고 감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158~159쪽

- 가** ① 벗 ② 바위 ③ 물 ④ 달 ⑤ 풀 ⑥ 꽃
⑦ 문답 ⑧ 대구 ⑨ 깨뜻
- 나** ① 복수초 ② 출석부 ③ 잡초 ④ 눈 ⑤ 생명력
⑥ 순서 ⑦ 애정 ⑧ 땅 ⑨ 부양

+ 어휘 체크

본문 160쪽

- 1 (1) ㉠ (2) ㉡ (3) ㉢
2 <가로> ① 송구스럽다 ② 방치하다
<세로> ① 송죽 ③ 사치

02

누항사 / 가난한 날의 행복

가 [누항사_박인로]

갈래 은일 가사

성격 전원적, 사색적, 사실적

주제 누항에 묻혀 사는 선비의 궁핍한 삶, 안빈낙도와 유교적 도리를 추구하는 자세

특징

- 대화체와 일상 언어를 사용함
- 임진왜란 이후 사대부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함

나 [가난한 날의 행복_김소운]

갈래 경수필

성격 교훈적, 회고적

주제 가난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특징

- 몇 개의 독립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움니버스식 구성 방식을 사용함
- 경구를 사용하여 주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 06 소
07 오디새 08 단사표음 09 가난 10 행복

실력 문제

11 ④ 12 ③ 13 ⑤ 14 ③ 15 ⑤ 16 ①
17 ② 18 ⑤

- 01 (가)는 갈래상 가사에 해당하며, 가사는 3(4)·4조, 4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 02 (가)에서 ‘목 붉은 수평’과 ‘삼해주’는 건넌집 사람이 소 주인에게 대접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가난한 처지와는 관련이 없는 대상이다.
- 03 (가)의 화자는 사대부 신분이지만 스스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 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
- 04 (나)의 ‘다음은 어느 종로의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라는 부분을 통해 (나)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5 (나)에서는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경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복은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 존중에서 온다는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 06 (가)의 화자는 농사지을 ‘소’가 없어 저녁에 이웃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소를 빌리려 하고 있다.

- 07 (가)에서 ‘무정한 오디새’는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난한 화자의 슬픔을 고조하는 존재이다.
- 08 단사표음은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가)의 화자는 ‘단사표음’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삶에 만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09 (나)에서 종로의 여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행복을 느낀 부부의 이야기이다.
- 10 (나)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잃지 않은 중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이 반드시 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1 표현

(가)에는 화자와 소 주인의 대화가, (나)에는 글쓴이와 중로 여인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 화자와 중로 여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특정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화자가 소를 빌리러 갔다 오는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반면 (나)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찾아 서울에서 춘천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화자가 소를 빌리러 갔던 구체적 일화를 제시하여 자신이 겪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글쓴이가 종로의 여인에게 들은 일화를 제시한 후 가난과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12 표현

(가)의 본사에서는 ‘오디새’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결사에서는 ‘명월청풍’과 ‘백구’를 통해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에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액자식 구성은 소설, 희곡 따위에서 이야기 속에 하나 또 그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이다. (가)에 이야기 속의 다른 이야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 화자·대상

(가)의 화자는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한 후 집에 돌아와 잠도 이루지 못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소를 빌리지 못하고 돌아와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형식적으로 소 한 번 빌려주겠다고 한 이웃집 소 주인의 말을 듣고 친절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이웃집 소 주인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음을 보여 준다.

- ③ (가)의 화자는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어 강호에서 큰 꿈을 생각한 지도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소가 없어 쟁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깨닫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꿈을 떠올리고 있다.

14 화자·대상

[A]에서 화자가 소를 빌리러 왔다는 뜻을 밝히자, ‘소 주인’은 공짜로나 값을 받거나 간에 빌려줄 수 있지만 건넛집 사람에게 이미 소를 빌려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의 대사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A]의 ‘큰기침 에헴이를 오래토록 하온 후에’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A]의 ‘초경도 거운데 그 어찌 와 계신고’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A]의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저 사람이 ~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이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A]의 ‘사실이 그라하면 설마 어이할고’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시어(구) + 표현

(가)의 ‘풍월강산’은 화자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다시금 떠올리며, 자연과 벗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공간이다. 그리고 (나)의 ‘경춘선’은 종로의 여인이 남편에게서 따뜻한 애정을 느꼈던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풍월강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며, (나)의 ‘경춘선’은 따뜻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따라서 둘 모두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가)의 ‘풍월강산’은 이상적인 공간이므로 낭만적인 세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의 ‘경춘선’은 현실적인 공간이므로 환상적인 세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가)의 ‘풍월강산’은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는 처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의 ‘경춘선’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부부의 애정을 보여 줄 뿐 자부심을 나타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가)의 ‘풍월강산’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과 관련 있으므로 사대부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의 ‘경춘선’이 현대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표현

(나)에서 남편은 춘천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길에 사람을 태워 준 것으로 볼 때 정이 많은 성격이며, 친구의 집에 기숙을 하면서까지 사과 소매를 한 것으로 볼 때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나)에서 남편은 손해를 보아서 안 될 가난한 처지였기 때문에 사과 소매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남편이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줄 뿐, 경제적 성취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나)에서 남편은 사과를 팔기 위해 춘천으로 떠난 것일 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 ④ (나)에서 남편은 가정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친구의 집에 기숙을 하면서 사과 소매를 한 것이다.
- ⑤ (나)에서 남편이 사과가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태워 준 것으로 볼 때 계산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17 주제

(나)에서 종로의 여인 부부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은 가난할 지라도 따뜻한 애정이 있으면 행복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종로의 여인 부부는 가난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행복은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로,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은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 경쟁의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은 가난으로 인한 고생과 좌절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배려, 존중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18 화자·대상 + 주제

(가)의 화자는 자연과 벗 삼아 살기를 소망하면서 자연을 속세와 달리 갈등이 없는 순수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툼 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부분이며, 농민과 갈등을 겪은 것에 대한 괴로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사대부이지만 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이다. 해당 부분은 소를 빌리지 못한 채 물러나는 화자의 초라한 모습이므로,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화자의 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친절하다고 여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다. 해당 부분에서 ‘세상 인정 모른 한숨’은 각박해진 사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농민으로 살아갈 여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④ (가)의 화자는 농사를 포기하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꿈을 떠올리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165~166쪽

- 가** ① 소 ② 자연 ③ 가난 ④ 충효 ⑤ 의태어
⑥ 자연물 ⑦ 궁핍
- 나** ① 회상 ② 사랑 ③ 춘천 ④ 손 ⑤ 솔직 ⑥ 부
⑦ 행복

+ 어휘 체크

본문 167쪽

- 1 (1) 면목 (2) 세파 (3) 경구
2 <가로> ① 풍채 ③ 소매 ⑤ 백구
<세로> ② 채소 ④ 매표구

03

안민가 / 평생에 일이 업서~ / 이론

가 [안민가_총답사]

갈래 10구체 향가

성격 유교적, 교훈적, 직설적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안

특징

- 현전하는 향가 중 유일하게 유교적 내용을 담음
-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빗대어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나 [평생에 일이 업서~_낭원군]

갈래 평시조

성격 자연 친화적, 풍류적, 체념적

주제 세상을 잊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삶

특징

- 대유법을 활용하여 자연을 나타냄
-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다 [이론]

갈래 설명문

성격 체계적, 분석적

주제 향가와 시조의 영향 관계

특징

- 향가와 시조의 영향 관계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어린아이
06 강산풍월 07 엇더타

실력 문제

08 ④ 09 ④ 10 ② 11 ③

01 (가)는 '4구+4구+2구'의 형태를 보이는 10구체 향가이고, (나)는 '초장+중장+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이 4음보로 정형화되어 있는 간결한 형식의 평시조이다.

02 (가)에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가 열거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3 (나)의 화자는 '평생에 일'이 없어 자연에서 노니는 삶을 노래하고 있을 뿐, 벼슬살이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다)의 2문단에서 시조는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3문단에서 향가는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됐다고 하였다.

05 (가)에서는 임금을 아버지제, 신하를 어머니제, 백성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여 교훈적인 내용을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58 정답과 해설

06 (나)에는 자연의 일부본인 '산수', '강호', '강산풍월'을 통해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07 시조의 종장 첫 구는 3글자로 고정되어 있는데, (나)의 종장 첫 구의 감탄사 '엇더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08 표현

영탄적 표현은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가)에는 감탄사 '아오', (나)에는 감탄사 '엇더타'와 감탄형 어미 '-노라'를 활용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 한다면 ∼ㄹ 것입니다'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나)에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② (가)의 화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태평하게 하는 방안을 직설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을 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의 화자 또한 독백적 어조로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을 뿐,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 한다면'과 같은 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는 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9 화자·대상 + 주제

(가)의 9~10구에서 화자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고 하며, 임금과 신하, 백성이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임금과 신하가 부모처럼 백성을 먹여 다스릴 때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즉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곧 임금과 신하의 소임임을 알 수 있다.

② 나라가 태평해지기 위해서는 임금과 신하, 백성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알아두기 「안민가」의 사상과 주제

유교적 통치 이념 임금과 신하, 백성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할 때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해짐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안

10 시어(구)

㉔은 임금이 백성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는 백성의 말이다. 즉 (가)의 7~8구는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에 만족한다면 나라가 잘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4구에서는 임금과 신하가 가족적인 사람에 기반하여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도 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을 의미한다.

- ③ ㉔은 (가)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인 국민안(國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의 경지를 의미한다.
- ④ ㉔은 자연의 주인 즉,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⑤ (나)의 화자는 '강호', 즉 자연의 주인이 되어 '세상일'을 다 잊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㉔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의 공간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11 표현 + 주제

(다)에서 10구체 향가는 '4구+4구+2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의 정제된 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10구체 향가인 (가)의 '4구+4구+2구' 형태는 평시조인 (나)의 각 장 4음보의 정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초장+중장+종장'의 삼단 구성에 영향을 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다)의 3문단에서 향가와 시조는 형식적 측면에서와는 달리 내용적 측면에서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 ② (다)의 1문단에서 10구체 향가는 낙구에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향가인 (가)는 낙구(9구~10구)에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어 있고, 시조인 (나)는 종장에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이라는 주제가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의 3문단에서 향가의 내용 중 '안민(安民)'이 있다고 하였는데, (가)는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안을 노래한 향가로 제목을 통해서도 '안민'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의 4문단에서 평시조는 사대부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한 갈래임을 알 수 있는데, (나)는 사대부인 낭원군이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노래한 평시조로 사대부의 정신세계가 드러나 있다.
- ⑤ (다)의 1문단에서 향가의 감탄사와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정서적으로 고양시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가)의 '아으'는 10구체 향가 낙구의 감탄사이고, (나)의 '엇더타'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이다.

+ 독해 체크

본문 171~172쪽

- 가** ① 임금 ② 태평 ③ 직설적 ④ 사랑 ⑤ 유교
⑥ 가족 ⑦ 은유법 ⑧ 반복
- 나** ① 세상일 ② 벗 ③ 친화적 ④ 자연 ⑤ 감탄사
- 다** ① 시조 ② 정형성 ③ 불교적

+ 어휘 체크

본문 173쪽

- 1 (1) 강산풍월 (2) 태평 (3) 전승
2 (1) ㉔ (2) ㉔ (3) ㉔

04

어이 못 오던가~ / 규원가 / 찰밥

본문 174~177쪽

가 [어이 못 오던가~_작자 미상]

갈래 사설시조

성격 연정적, 해학적, 과장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 특징**
- 연쇄법, 열거법 등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해학과 과장을 통해 솔직하게 표현함

나 [규원가_허난설헌]

갈래 규방 가사

성격 고백적, 자조적, 체념적

주제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의 한스러운 삶

- 특징**
- 여러 대상에 화자의 심정을 투영하여 표현함
 - 유려하고 우아한 문체를 사용하여 규방 여인의 섬세한 정서를 드러냄

다 [찰밥_윤오영]

갈래 경수필

성격 고백적, 회고적, 서정적

주제 찰밥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특징**
- 찰밥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매개로 하여 어린 시절을 회상함
 - 현재 시점과 과거 회상을 오가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 06 ○
07 장애물 08 살얼음 09 면목가증 10 회상

실력 문제

- 11 ③ 12 ① 13 ④ 14 ⑤ 15 ④ 16 ⑤
17 ①

01 (가)는 일상적인 소재를 나열하고 있지만, 화자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해학과 과장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02 (가)에 임이 왜 화자를 만나러 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종장에 제시된 임이 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은 화자가 상상한 것이다.

03 (나)는 가사로 행수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가)는 사설시조로 '초장-중장-종장' 중 주로 종장의 길이가 길어질 뿐, 가사처럼 행수에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04 (나)의 제목을 보면, '규(閨)'는 아녀자들이 머물던 방을, '원(怨)'은 원망을 의미하므로 '규원가'는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

를 한탄하는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떠나간 뒤 소식조차 끊어진 입을 그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05 (나)에서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는 화자의 잠을 깨워 꿈에서라도 입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06 (다)에서 어머니는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아들인 글쓴이의 성공을 믿고 당부했지만, 글쓴이는 '생각하면 슬픈 일'이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백수 오십에 성취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07 (가)의 화자는 입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이유가 입을 겹겹이 둘러싼 장애물 때문이라 추측하며, 그 장애물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08 (나)의 '당시에 마음 쓰기 살얼을 디디는 듯'은 남편에 대한 화자의 위태롭고 조심스러웠던 마음을 비유적(직유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09 (나)의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 었구나'는 화자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이를 통해 늙고 초라해진 현재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10 (다)의 글쓴이는 원족을 갈 때마다 과자나 과일 같은 것은 못 싸 가고 오로지 어머니께서 정성껏 지어 주신 찰밥만을 싸 갔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11 **화자·대상 / 글쓴이 + 표현**
(가)와 (나)는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낙관적이라는 것은 상황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이므로,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나 슬픔을 드러낸 (가)~(다)와 관련이 없다.

② (나)는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는 원족을 갈 때 찰밥을 싸 갔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회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무상감은 덧없다는 느낌을 말하는데, (가)~(다)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인생의 무상감과 거리가 멀다.

⑤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감정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12 **표현**
중장에서 연쇄법과 열거법을 통해 입이 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과장되게 가정함으로써 입이 오지 않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ㄱ). 또한 종장에서 '한 해도 열두 달이 오 ~ 날 와 볼 하루 없으랴'라는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환기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ㄷ. (가)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을 뿐, 부정적 현실을 바꾸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ㄹ. 청자는 '너'라고 할 수 있지만, 화자가 청자인 '너'와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13 **글쓴이 + 주제**
(다)에는 글쓴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찰밥'이 갈등을 해소해 주는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글쓴이는 어린 시절 가난했기에 소풍을 갈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찰밥만을 싸 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정성스레 찰밥을 싸 주시던 어머니의 사랑, 격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장래에 대한 야망을 품어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② 현재 글쓴이는 친구들과 야유를 가기로 한 상황에서 자신이 싸 들고 가는 찰밥을 매개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14 **시어(구) + 표현**
㉔은 어머니께서 원족 때마다 찰밥을 싸 주시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어딘가 놀러 가려면 으레 찰밥을 싸 가곤 한다는 글쓴이의 고백이 나타난 부분이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은 '~ 못 오던가'라는 의문형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㉔은 여성의 생활과 가까운 소재(베을에 복)를 통해 세월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㉔은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만난다는 것으로, 이는 입에게 소식조차 오지 않는 화자의 신세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㉔에는 견우직녀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㉔은 '~ 있을까'라고 하여 설의법을 통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알아두기 「규원가」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

- 천연 여질, 설빈화안: 과거 화자의 아름다웠던 모습
→ 면목가증: 현재 화자의 보기 싫어진 모습
- 꿈: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입을 보고자 하는 수단
→ 잎, 벌레: 꿈에서 입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
- 견우직녀: 일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서로 만나기에, 입을 만나지 못하는 화자와 대비되어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

15 **표현**
㉔는 대나무 푸른 숲에서 우는 새의 소리를 두고 서럽다고 표현한 것이다. 즉 입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과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새'라는 대상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㉔에는 겉으로는 모순되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㉔에는 '죽림'과 '새 소리'라는 자연 현상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③ ㉔에는 문장 성분의 일반적인 배열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는 도치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㉔는 화자의 외로움과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새'라는 대상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지, 화자의 상황과 대조되는 대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16 글쓰기 + 어휘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글쓴이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A]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②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말로, [A]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③ ‘유구무언(有口無言)’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A]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④ ‘전전반측(顛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로, [A]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17 화자·대상 + 시어(구)

(나)에서 화자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서나 보려 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화자도 임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 잠이 든 상황에서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의 ‘꿈’과 <보기>의 ‘꿈’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나)와 <보기> 모두 화자와 임이 서로를 이해하거나 화자가 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⑤ (나)와 <보기> 모두 꿈을 통해 화자가 현실에 대한 비관 의식을 드러내거나 지난 삶을 돌아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독해 체크

본문 178~180쪽

- 가** ① 이유 ② 원망 ③ 가정 ④ 장애물 ⑤ 반복
⑥ 열거 ⑦ 연쇄 ⑧ 설의
- 나** ① 세월 ② 운명 ③ 한탄 ④ 원망 ⑤ 꿈
⑥ 견우직녀 ⑦ 새 ⑧ 직유
- 다** ① 회상 ② 눈물 ③ 어머니 ④ 과거 ⑤ 찰밥
⑥ 사랑 ⑦ 그림

+ 어휘 체크

본문 181쪽

- 1 (1) 전례 (2) 결박 (3) 흥안 (4) 뒤주
2 <가로> ② 여생 ③ 박명
<세로> ① 삼생 ② 여명

05

쉽게 씌어진 시 / 산길에서 / 관동별곡

가 [쉽게 씌어진 시_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반성적, 저항적, 성찰적

주제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

특징 •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 상징적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나 [산길에서_이성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교훈적, 사색적

주제 산을 오르며 얻은 깨달음

특징 •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역사의식을 깨달음
• 단정적인 어조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다 [관동별곡_정철]

갈래 기행 가사, 양반 가사, 정격 가사

성격 묘사적, 풍류적, 서사적

주제 금강산과 관동 지방의 절경에서 느낀 감상과 심회

특징 • 생략과 비약, 비유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여정과 견문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 형식상으로는 4음보의 율격을 보이는 운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서사적 성격을 띤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천명 09 화해 10 반복 11 후각
12 기운 13 여산 14 백성, 삼일우

심력 문제

- 15 ① 16 ② 17 ② 18 ④ 19 ④

01 (가)에서 화자는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다니는 유학생으로서의 자기 삶을 ‘홀로 침전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또 시를 쓰는 일은 ‘슬픈 천명’으로,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쉽게 시를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가)에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03 (나)는 화자의 독백 형식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04 (나)에서 ‘산길’은 먼저 걸어간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 그 ‘부질없는 되풀이’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으로, 누적된 인간

의 삶 또는 이름 없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를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05 (다)의 화자는 ‘개심대’에 올라 중향성과 비로봉을 바라보고 내려온 후 ‘화룡소’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화룡소에서 이동하여 ‘불정대’에 올라갔다.

06 (다)의 화자는 비로봉을 바라보기만 할 뿐, 실제로 비로봉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

07 (다)에서 화자는 은하수를 끊어서 베틀에 걸어 놓은 모양에 빗대어 폭포의 장관을 묘사했다.

08 (가)에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이라는 시구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화자의 괴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09 (가)의 9연에 제시된 ‘최후의 나’는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며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인 ‘나’와 구별되는 또 다른 ‘나’, 즉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내면적 자아를 말한다. 그러므로 ‘최초의 악수’는 두 자아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여 화자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임을 보여 준다.

10 (나)에서는 ‘나는 안다’라는 단정적인 어조를 반복하여 산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1 (나)에서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는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난 것이다.

12 (다)에서 화자는 금강산 봉우리마다 땀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이 맑고도 깨끗하다고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흡수하여 세상의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13 (다)에서 화자는 이적선(이태백)이 여산 폭포의 장관을 묘사한 것을 떠올리며, 십이 폭포가 ‘여산’ 폭포보다 더 아름답다며 감탄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4 (다)를 보면 화자는 화룡소에 이르러 자신을 ‘천 년 노룡’에 비유하여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즉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삼일우’는 ‘선정’을 비유한 말로, ‘풀’을 살려 내는 생명력의 이미지를 갖는 시어이다.

15 화자·대상

(가)의 화자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산길을 만든 그이들처럼 자신 역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처럼 죽어 가는 백성들

을 살리기 위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의 화자는 어릴 때 동무들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다)의 화자는 대상의 부재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다.

③ (다)의 화자는 바람과 구름(풍운)을 얻은 비(삼일우)가 시든 풀을 살려 내는 자연의 섭리를 본받아 선정을 베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의 화자가 보이는 태도는 자연의 섭리를 본받고자 하는 것과 무관하다.

④ (가)의 화자는 일제 강점하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 현실이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에서 동떨어져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와 (다)의 화자는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과 무관하다.

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나)와 (다)의 화자는 과거 삶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6 화자·대상 + 시어(구) + 표현

[B]에는 화자의 무력한 일상과, 부정적 현실로 인한 회의와 좌절감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화자가 분노를 느끼고 대응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는 비 내리는 밤(시간적 배경), 남의 나라 육첩방(공간적 배경)에서 시인이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를 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C]에는 인생과 시 쓰기를 대조하면서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A]의 1연이 [D]의 8연에서 변형되어 반복되면서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 드러나 있다.

⑤ [C]에서의 화자는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여 시나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데에 그쳤다면, [D]에서의 화자는 반드시 올 ‘아침’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알아두기 (가)의 화자의 태도 변화

1~2연	암울한 현실을 인식함
3~6연	암울한 현실에서의 무기력한 삶에 대해 회의를 느낌
↓	
7연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함
↓	
8~10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임

17 표현

㉠은 의문형 진술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을 성찰한 표현이고, ㉡은 의문형 진술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표현이다. 또한 ㉢은 의문형 진술로 자신이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은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 모두 의인법, 대구법, 시어의 반복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에는 ‘어와’라는 감탄사가 나타나지만, ㉠과 ㉡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18 화자·대상

(다)의 화자가 이적선과 실제로 폭포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아니다. 화자는 만약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이적선(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가 노래했던 여산 폭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십이 폭포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며 십이 폭포의 장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맑고 깨끗한 기운이 맺혀 있는 봉우리들을 보면서 '저 기운 흠어 내어 인걸을 만들고저'라고 한 것에서 나라를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② 화자는 형용도 끝이 없고 체세도 많기도 많다고 하면서 변화무쌍한 금강산 산봉우리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히 되있는 줄 알았더니 모두 조물주가 뜻이 있어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③ 화자는 비로봉을 바라보며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단 말인고'라고 하면서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언급하고 있다. '어와 저 경지를 어이하면 알 것인고'는 그런 공자의 드높은 경지에 대한 동경이 드러난 부분이다.

⑤ 화룡소를 보던 화자는 그 안에 굽이굽이 서려 있는 '천년 노룡'이 풍운을 얻어서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낼 비를 흠뻑 뿌릴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고된 삶을 사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아두기 (다)의 화자의 선정을 향한 포부

삼일우

- 삼 일 동안 내리는 비를 뜻하며, 풀을 살려 내는 생명력의 이미지를 가짐
- 시든 풀(고통받는 백성)을 살릴 좋은 정치, 임금의 은총 등을 의미함

시든 풀

할벗고 굶주린 백성을 의미함

알아두기 (나)의 시어의 상징적 의미

그이들

- 길을 만든 이들, 화자보다 먼저 길을 걷은 이들
- 다수의 이름 없는 민중, 힘없는 이들
- '그이들'의 부질없어 보이는 발걸음이 되풀이되어 '길'이 만들어짐

길(산길)

민중의 역사, 인간의 삶

독해 체크

본문 186~188쪽

- 가** ① 시인 ② 성찰 ③ 육첩방 ④ 최후 ⑤ 악수
⑥ 밤비 ⑦ 등불 ⑧ 의지
- 나** ① 산길 ② 신명 ③ 풀꽃들 ④ 되풀이 ⑤ 단정
⑥ 설의적 ⑦ 역사
- 다** ① 화룡소 ② 감탄 ③ 포부 ④ 풍운 ⑤ 백성
⑥ 은하수

어휘 체크

본문 189쪽

- 1 (1) 천명 (2) 신명 (3) 위안 (4) 내음
2 (1) ㉠ (2) ㉡ (3) ㉢

19 시어(구)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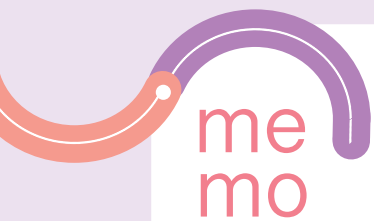
'부질없는 되풀이'는 산길을 만들어 온 이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의미하며,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길을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부질없는 되풀이'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름 없는 민중의 삶을 상징할 뿐, 민중을 향한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보고 있는 '이 길'은 앞선 이들이 만든 것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민중의 삶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민중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바람'과 '풀꽃들'은 화자의 가슴을 벅차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보기>에 제시된 '애정과 믿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부질없는 되풀이'로 보이는 수많은 이들의 걸음이 실은 '무엇 하나 싹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은 민중의 삶이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화자의 깨달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선 이들의 발걸음처럼 지금 자신의 발걸음도 '산길', 즉 민중의 역사를 만드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